



군산장례(전문)예식장



거품없는 장례비용으로 예(禮)와
정성(情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T. 468-4119, 4444



예식실



사우나실



2층로비

동군산 장례식장



‘가장 가깝고, 가장 편리한 곳에서
마지막 친절을 보내주세요’

T. 441-4444



SHIDAO International Ferry

상상
그 이상을 향해!

P.S NEW SHIDAO PEARL / P.S GUNSAN PEARL
DAILY SERVICE



석도국제페리(주) www.shidaoferry.com

부산 **tel.** 063-441-1200 **fax.** 063-441-1220

석도 **tel.** +82-621-720-0000 **fax.** +82-621-720-0200

서울 **tel.** 02-725-3311 **fax.** 02-725-1671

하역/운송사 (주)에스 **tel.** 063-461-1803 **fax.** 063-461-1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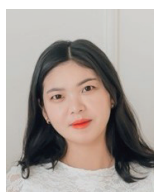
박승일
회장
newgunsanews@naver.com



채명룡
발행인
ml7614@naver.com



강권모
부사장
sky6113483@hanmail.net



이쥬은
편집부장
leejony_@daum.net



최승호
취재부장
gsport11@naver.com



강해인 편집위원
godls468@naver.com



박세원 편집위원
작가
hamp38@hanmail.net



배수정 편집위원
서양화 작가
국립군산대 서양화 강의
jlmjlm710@naver.com



신성호 편집위원
지필문학/대한문학
편집발행인
한국예총 군산지회
부회장
shinez2580@hanmail.net



신재순 편집위원
시인(전북작가회의)
한국동시문학회 회원
speedal@hanmail.net



오성렬 편집위원
칼럼니스트
poi3275@naver.com



이소암 편집위원
시인(전북작가회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문예창작 전담교수
lsa6246@hanmail.net



이영미 편집위원
프리모아트컬렉션
(사)이음예술문화원
대표
ycm1022@hanmail.net



이준호 편집위원
작가
sting4246@hanmail.net



조경신 편집위원
군산시가족센터장
호원대학교 아동복지
학과 외래교수
vip2300@daum.net



한대산 편집위원
jbekt@naver.com



공종구 편집위원
국립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kong@kunsan.ac.kr



한상오 편집위원
새만금환경생존연합 대표
hansango24@gmail.com



Vol.169 | 2025.05

회장	박승일	newgunsanews@naver.com
발행인	채명룡	ml7614@naver.com
부사장	강권모	sky6113483@hanmail.net
편집부장	이쥬은	leejony_@daum.net
취재부장	최승호	gsport11@naver.com
편집위원	강해인	godls468@naver.com
편집위원	박세원	hamp38@hanmail.net
편집위원	신성호	shinez2580@hanmail.net
편집위원	오성렬	poi3275@naver.com
편집위원	이소암	lsa6246@hanmail.net
편집위원	이영미	ycm1022@hanmail.net
편집위원	조경신	vip2300@daum.net
편집위원	최영두	cydnovl@naver.com
편집위원	한상오	hansango24@gmail.com
편집위원	한대산	jbekt@naver.com
칼럼니스트	배수정	jlmjlm710@naver.com
칼럼니스트	신재순	speedal@hanmail.net
칼럼니스트	공종구	kong@kunsan.ac.kr
칼럼니스트	김철호	www.crabland.com
자문위원	이진우	jay0810@hanmail.net

동문일인 생기는 대학 굿잡! 군장대학교

WURI 세계혁신대학 5년 연속 선정

산업적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tion) 부문

(평가 2020 45위, 2021년 27위, 2022년 32위, 2023년 31위, 2024년 30위 선정)

고등직업교육 융합인성대학 | 교육부 고등직업교육거점 지구(HIVE 1유형) 사업 선정
 교육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1,2유형) 선정대학 | 교육부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LIFE2.0) 운영대학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 고용노동부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운영대학
 교육부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운영대학 | 교육부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운영대학



사명: 군장대학교

군장대학교

군산고 출신 김제시장의 지나친 군산 때리기

요즘 군산시가 동네북이 된 모양새이다.

김제시의 '가장 힘센 한 놈만 때리기' 전략에 요란하게 맞대응을 하면서 비롯된 일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 표를 의식한 억지가 대부분이다. 김제 시내 곳곳에 '동서도로 관할권 승리', '수변도시 관할권 김제시 확장', '수변도시 관할을 넘어 새만금신항을 확보하자' 등 등 현수막이 요란스럽다.

마치 군산을 상대해 완승을 거둔 것처럼 말이다.

최근의 한 지방 언론사에 정성주 시장이 기고한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라는 칼럼을 기고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만경강 7공구 방수제,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등을 모두 김제시 관할로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또 "군산시가 관할권 분쟁을 일으키고 '헌 군산항 줄게, 새 신항만 다오'를 외치고 있다." 라는 주장이다.

또 '법과 상식'을 주장하면서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이 관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군산시를 향해서는 '찔러보기식' 억지 주장을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무엇이 억지 주장인가?

대법원은 당시 "기존 육지와와의 연결구조, 접근성, 주민생활권,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적합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군산·김제·부안 인접 지역별로 합리적인 구획이 될 수 있다."는 조건부 판단을 내렸다.

이 판시는 '향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를 포함하고, 절대적인 귀속기준을 선언한 것이 아니며, 판결의 범위

는 새만금 방조제 내측만을 한정하고 있다.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김제로 판결한 걸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방조제 안쪽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개발된 사실이 명백한 새만금신항을 두고 김제 관할 2호 방조제 앞에 만들으니, '김제 앞이니 김제 갯'이라는 논리이다.

'법과 상식'에 의해 판단했는가?

정 시장은 군산고 출신 아닌가.

군산항의 126년 역사를 무시한다면 그 자신의 성장과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아무리 표를 겨냥한 전략(?)이지만 이걸 해도 너무했다.

그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군산항(내항)은 토사 매몰로 기능 상실 위기였으며, 외항을 만든다고 떠들썩했다.

그 이후 군산신항만을 거쳐 새만금신항으로 항만을 넓혀왔다

시장 자리를 지키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억지 주장이 표를 얻는 건 아니다.

같이 고등학교를 다녔던 분들이 '깜(?)도 안되는 것이~~~' 라고 험한 말을 하는 이유를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



글 채명룡
발행인

ml7614@naver.com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동군산병원" 이성규 이사장

글 | 채명룡
ml7614@naver.com

‘동군산병원’이 개원한 건 지난 2004년 10월이다.

그 다음해 4월 신경외과 전문의 이성규 이사장이 취임하였으며, 2007년 5월 종합병원으로 승격했다.

지난 1995년 군산에서 개원했던 이성규 이사장. 그가 동군산병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설계한 지도 만 20년이 지났다.

동군산병원은 이성규 이사장 시대를 맞은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시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익산이나 전주의 대학병원으로 옮기다가 세상을 뜨는 일이 빈번했던 때였다.

동군산병원의 존재감이 확실히 다지게 된 건 바로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병원의 변화’를 확인하면서부터였다.

환자들이 병원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그 변화를 이끌어 낸 게 바로 신경회과 전문의이면서 경영인 역할을 해 온 이성규 이사장이다.





가장 가까운 친구 ‘동군산병원’

지난 2010년 이 지역 최초로 암 진단 장비인 PET-CT를 도입하고 대학병원급 장비를 갖춘 심뇌혈관센터를 개설한 건 특별한 성과였다.

특히 야간에 응급 환자들을 살려내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불리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난 2011년 세운데 이어, 2016년 이 지역 최대규모의 건강증진센터를 열면서 군산의 여러 사업장들은 물론 일반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암이나 심장, 뇌혈관 질환의 조기 진단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으나 전문 검진기관 부족으로 외지로 떠났던 환자들에게 동군산병원의 검진센터, 응급센터 등은 가뭄에 단비같은 존재였다.

2018년에는 인공지능센터를 개설했으며, 진단 의학 관련 대학병원급 최첨단 의료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면서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해 나갔다.

수많은 군산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데 기여하여 왔던 ‘동군산병원’은 군산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친구로 여기는 병원으로 자리잡았다.

이 병원의 내일을 기획하고 만들어 온 이성규 이사장이 그 중심에 있었기에 오늘이 가능했다.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의 보루’, 건강증진센터

동군산병원이 군산시민들에게 믿음이 가는 병원으로 성장하는데에는 지난 2016년 신축한 군산지역 최대 규모의 건강증진센터 역할이 컸다.

이성규 이사장이 ‘예방과 치료를 선도하는 병원’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지역주민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이 센터를 신축하고, 원스톱 검진이 진행되도록 검진동선을 구축했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평일 조조검진과 토요일 검진, 그리고 임상 경험이 풍부한 상담 간호사들이 개인별 맞춤형 검진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또한 검진 후 유소견자에 대해 사후관리 전담간호사가 진료 안내 및 추적관리로 진료과와 연계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환자들과 친밀한 병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 센터를 통하여 진단 받은 환자들 중에서 3차 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협력센터를 통한 진료 예약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위,대장 내시경검사 및 용종제거술을 시행하여 암의 조기발견에 힘쓰고 있으며, 여성 존을 마련하여 유방갑상선외과, 산부인과 전문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인이 상주하여 사업체 특수검진을 시행 중이다.

전문적인 검진시스템 운영으로 지역민들의 질병 예방은 물론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의 보루’로써 역량을 발휘하는 중이다.



지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건강검진센터



동군산병원 건강검진센터



유방갑상선센터



혈관조영센터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는 동군산병원

동군산병원은 또 한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신관 4, 5층 증축으로 전문 의료공간을 확보하고, 본관의 중환자실과 응급의료센터를 확장하여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에게 보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동군산병원은 지난 2014년~2016년 지역에서 유일하게 삼성서울병원과 진료협약을 맺어 유수의 교수진들이 동군산병원 파견진료로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였다.

지역민들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심화시키는 일 또한 중요하다.

또한 진료협력센터의 규모와 기능을 확장하여 지역협력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환자들을 위한 Hot-line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공공의료 기능을 확충해 고령화 시대에 맞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 안전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을 이성규 이사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하는 동군산병원

‘지역주민과 호흡하고 신뢰받는 병원’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병원, 지역주민 누구나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병원으로 자리잡아 왔다.

지난 10년 이상 병원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랑나눔후원회’는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게 의료비 지원을 꾸준히 해왔다.

또 가정방문간호, 농어촌 의료봉사, 사회복지시설 후원, 환경 정화 활동 참여 등을 통해 늘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을 추구하는 동군산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업’에 4년 연속 선정되었다.

ESG경영을 위한 노력은 물론 종이배출량을 줄이기, 의료폐기물 저감장치 도입, 잔반줄이기 운동 등의 활동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 공헌 인정의 날



지역사회와 함께하려는 환경 정화 활동

의료 사각지대 극복과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군산과 서천, 보령 등의 충남 남서지역은 지난 2005년 개원 당시 심뇌혈관질환 및 외상, 중증응급환자 등을 수용할 병원의 부재로 의료의 사각지대였다.

이러한 의료공백을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2010년부터 심장혈관센터, 뇌혈관센터 및 소화기센터, PET-CT를 도입한 암진단센터를 지속적으로 개소하여 각 분야별 특화된 진료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어 2011년 응급 환자의 치료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문도 열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동군산병원은 급성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며 타 지역으로의 환자 유출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2016년 건강증진센터, 첨단 무균시스템을 갖춘 수술센터, 혈관조영센터를 갖추고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전문 의료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했다.

지역최대 규모와 최첨단 혈액투석 장치를 갖춘 인공신장센터를 개소해 신장질환 환자들을 위한 전문 진료분야를 넓혀나갔다. 이 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지난 2017년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45병상)을 시작으로 1개 병동씩 확대해하였으며, 2025년 현재, 5개 병동에 224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최첨단 CT도입 가동식에 함께 한 이성규 이사장



심뇌혈관 조영촬영 장비



아시아병원연맹 회장으로 선출된 이성규 이사장

대한병원협회 회장에 지방병원 출신으로 이성규 이사장이 당선된 건 최초의 사례였다. 동군산병원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린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가 2025년 2월 16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개최된 2025 아시아병원연맹(AHF)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아시아 병원계 수장을 맡아 활동하게 된다.

“아시아 병원계 수장을 맡게 된 것에 영광을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2년의 임기동안 AHF 회원간 네트워크 강화와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특히 내년은 IHF(국제병원연맹)에서 주최하는 ‘World Hospital Congress’와 AHF 이사회를 개최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AHF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아시아병원연맹 회장으로 선출된 이성규 이사장이 주관하는 첫 공식 행사로, 아시아 지역 병원계 리더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2026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9차 국제병원연맹(IHF) ‘World Hospital Congress’에 AHF 회원국 및 아시아 지역에서 대거 등록하여 아시아 지역 의료와 세계 병원계의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AHF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더욱 공고히 해 나간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동군산병원이 헤쳐 나가야 할 과제

“수도권이나 대도시 대비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필수 의료분야의 인력난은 더욱 더 심각합니다. 전문 진료과 부족으로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이성규 이사장은 “동군산병원도 예외는 아니지만 경쟁력 있는 병원으로,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발전하기 위해 임상경력이 풍부하고 우수한 수도권의 의료진을 지속적으로 영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안정적인 수의 간호사 등의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대제 개선사업, 아낌없는 직무교육이나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근무여건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군산병원이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워라벨 우수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지역주민의 건강 특성 및 요구에 맞는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불필요한 비용 절감 및 효율적 자원관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은 우선의 과제이다.

또 지역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의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병원으로 다가 가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으로부터 신뢰받는 병원 위상 정립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지역 완결형 병원, 지역주민의 건강 지킴이가 된다는 목표아래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힘써 온 동군산 병원.

늦지 않은 시기에 응급의료센터와 중환자실 등의 리모델링 및 확장을 통해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완비할 계획이다.

신관 증축으로 재활치료센터, 인공신장센터, 건강증진센터, 수술실, 혈관조영센터의 확장과 고객편의를 제공할 주차빌딩 신축, 감염병 전담 병동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장비 도입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형 병원과 협업해 스마트 투약 안전 관리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환자중심의 병원, 환자가 만족하는 스마트한 병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특히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인구 구조에 맞춰 질병의 예방관리와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지역사회 돌봄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중증도 환자진료 및 24시간 필수의료의 기능 수행 등 지역과 함께하는 병원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군산시민들과 가장 친숙한 동군산병원

전문 의료진과 직원 등 약 900여명이 병원 운영

글 | 채명룡

정리·사진 | 이좋은 leejony_@daum.net

동군산병원은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고령화와 암과 심·뇌혈관질환의 증가세 등 내원 환자들의 난이도 높은 치료 요구에 이 병원은 끊임없이 진화하여 왔다.

심뇌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등 특성화센터 운영과 급성 질환에 대한 진료 체계 강화, 그리고 인료과를 연계하는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군산병원은 내과, 외과 등 17개 분과별 60여명의 전문의료진이 중증질환과 필수 의료 제공을 위하여 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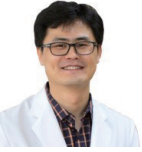
군산시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손꼽히는 이 병원의 진료과와 담당 전문의들을 살펴본다.

동군산병원 진료과 소개

동군산병원은 현재 21개 진료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각 과마다 전문의가 진료를 보면서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화기 내과>

음식물의 소화, 흡수 및 영양분의 저장에 관여하는 소화기관에 발생하는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내과의 한 분과.
소화기관이란 식도, 위 소장, 대장처럼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지나가면서 흡수되는 관광구조의 소화관과 이곳으로 소화액을 분비하거나 영양분의 저장에 필요한 장기인 간, 담낭 및 담도, 췌장과 같은 장기를 모두 말한다.



문세권 과장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소화기내과 전임의
진료분야: 소화기 및 위장관 질환, 간, 담도, 췌장 질환, 혈액종양
시술분야: 위, 대장 용종 절제술 및 점막 절제술(EMR),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경피내시경하 위루술(PEG), 내시경적 출혈 지혈술, 식도 이물 제거술



박민우 과장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임상강사
진료분야: 소화기 및 위장관 질환, 간, 담도, 췌장 질환, 내과 일반
시술분야: 위, 대장 용종 절제술 및 점막 절제술(EMR),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경피내시경하 위루술(PEG), 내시경적 출혈 지혈술, 식도 이물 제거술



구하라 과장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원자력병원 전공의·전임의 역임
진료분야: 소화기 및 위장관 질환, 간, 담도, 췌장질환, 호흡기질환
시술분야: 위, 대장 용종 절제술 및 점막 절제술(EMR),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경피내시경하 위루술(PEG), 내시경적 출혈 지혈술, 식도 이물 제거술



김보형 과장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미즈메디병원 소화기내과 과장
진료분야: 소화기[식도, 위, 대장] 질환, 간 질환, 췌담도 질환



송우건 과장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군산의료원 과장
진료분야: 소화기 및 위장관질환



남정자 과장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대전 선병원 검진센터 내과 과장
진료분야: 검진 내시경



박지승 과장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전) 대전선병원 소화기내과 전임의
진료분야: 소화기 및 위장관 질환, 검진내시경



안종남 과장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예수병원 소화기내과 전임의
진료분야: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호흡기 내과>

호흡기기관인 기관, 기관지, 폐 그리고 흉막의 질환을 진료하는 내과로서 주로 진료하는 질환은 폐렴, 폐결핵,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천식, 폐기종, 만성 기관지염, 폐암, 각종 흉막 질환, 간질성 폐질환등이 있다.

그 외에도 만성 기침, 호흡곤란, 객혈 등의 원인 진단 및 치료를 하고 있으며 또한 급성 호흡부전을 보이는 환자들에 대해 인공호흡기 치료를 비롯한 중환자 집중치료를 하고 있다.



김관형 과장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現)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내과학교실 명예교수

진료분야 : 기도질환, 천식, 과민성폐장염, 폐암 및 폐렴, 간질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부전증, 폐혈관질환, 기타 기침질환



오윤정 과장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수료

전주 대자인병원 호흡기센터장

진료분야 : 만성기침, 천식, 알레르기면역치료, 만성폐질환, 결핵, 폐암

<심장 내과>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판막증, 심부전 등을 치료하며 심전도, 심장초음파, 심혈관조영술을 비롯하여 운동부하 검사, 24시간 생활 심전도, 24시간 생활 혈압측정 등을 시행하고 최신 심혈관 조영촬영기를 이용하여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증환자에게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시행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



이승훈 과장

이승훈 과장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심장내과 과장

진료분야 :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말초혈관질환, 심부전, 고혈압



강동구 과장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석사, 박사 취득

(전) 광주첨단종합병원 순환기내과 과장

진료분야 : 복부대동맥류, 하지동맥질환,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 부정맥 심부전, 심장판막질환, 심근병증

<신장 내과>

만성신부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치료하며 혈액투석실과 복막투석실을 운영하여 고성능 혈액투석장비 도입으로 정확하고 안전한 혈액투석이 가능하고, 장시간 병원에서 보내는 환자들을 위해 집이나 다름없는 편안한 공간 마련하여 치료의 질을 높이고 있다.



구정상 과장

전북대학교 의학과 석사 수료

(전) 전북대학교병원 전임의

진료분야 : 혈액투석, 만성신부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혈뇨 및 단백뇨, 전해질 및 산염기 대사이상

<이비인후과>

귀, 코, 목에 관련된 질환 전반에 대해 진단, 치료하는 임상 진료과로서 분과(subspecialty)로는 해부학적 위치별로 이과(귀), 비과(코) 및 두경부외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비인후과의 경우 특이하게도 약물을 주로 사용하는 내과적 치료와 수술을 통한 외과적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진료과.

내과적 치료에는 이명, 어지러움, 비염, 수면질환, 인후두역류증 등의 질환들이 해당되고, 만성중이염, 만성부비동염, 비중격 및 외비성형술, 수면무호흡증 등의 질환에는 외과적 치료가 이루어진다.



오동환 과장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원광대학교 이비인후과 전공의

진료분야: 귀/코/목클리닉, 어지럼증, 이명, 난청, 알레르기성 비염, 비중격질환, 부비동염, 중이염

<외과>

종양, 위장관, 간담도췌장, 두경부, 내분비, 대장항문, 유방질환, 소아외과, 혈관외과, 장기 이식등을 다루고 있다. 외과계 질환의 최신, 최상, 최적의 치료를 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강경태 과장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의정부 신천종합병원 외과과장

진료분야: 간, 담낭, 담도 질환, 소화기 암 (간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위암, 대장암), 급성 복증, Trauma, 탈장, 복강경 수술, 중증 외상



김 용 과장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원광대학교병원 외상센터 전임의

진료분야: 대장암, 직장암, 항문질환: 치핵(치질), 치루, 치열, 농양, 모소동, 복강경 수술, 화상, 외상, 탈장, 일반외과 질환



박 찬 과장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전임교수

진료분야: 담낭질환, 간, 담도, 췌장질환, 간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복강경 수술, 급성복 증 및 외상



심재훈 과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외래부교수

진료분야: 유방암 및 양성 유방 질환, 갑상선암 및 양성 갑상선 질환, 내분비외과 질환, 일반외과 질환, 맘모톰 시술, 복강경, 내시경 수술

<흉부혈관외과>

흉부외과란 외과에서 분화 발전된 분야로써 크게 심장, 혈관 및 일반흉부의 수술을 담당하는 임상진료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확한 명칭은 흉부 및 심혈관외과로서 일반적으로 흉부외과는 일반흉부외과와 심혈관외과로 나누어 진다.



김난열 과장

전북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학박사 수료

(전) 원광대학교병원 외상센터 임상부교수

진료분야: 하지정맥류, 말초동맥질환, 투석 동정맥루, 기흉, 심막질환, 흉부외상, 늑골 골절, 혈흉

<산부인과>

산부인과에서는 인간의 생식과정 즉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여성의 질환과 여성생식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환은 다루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다시 산과학, 부인과학으로 나누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 진료를 한다.



박문철 과장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인천 우리산부인과 과장
진료분야 : 부인과 질환 검진



박성찬 과장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서울 여성 병원 산부인과 과장
진료분야 : 복강경내시경, 부인과질환, 암검진, 갱년기질환

<정형외과>

정형외과는 사지와 척추 그리고 부속기관의 형태와 기능을 내과적, 외과적 그리고 물리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보존하며 회복 및 발전시키는 의학의 한 분야.

각종 골절을 기본으로 하여 견주관절, 슬관절, 생체역학, 스포츠의학, 고관절, 골종양, 류마티스, 미세외과, 소아정형외과, 수부외과, 족부외과, 그리고 척추외과 등으로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다.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광범위한 내, 외과적인 예방, 진단과 치료가 시행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이종윤 과장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삼성서울병원 인공관절 센터 전임의 역임
진료분야 : 고관절 골절, 무릎 관절 (관절경 및 인공관절), 사지 골절, 외상



유병민 과장

(전)원광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임상교수
원자력병원 정형외과 연수
진료분야 : 어깨, 상지, 족부 전문, 인공관절, 관절내시경, 사지골절, 노인성 골절, 외상, 스포츠 손상



장봉준 과장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원광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임의
진료분야 : 인공관절, 관절내시경(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사지골절, 노인성 골절 및 스포츠 손상, 인대재건술, 고관절질환

<신경외과>

신경 관련 질환에 관한 교육, 연구, 진료를 하고 있으며 주로 중추신경(뇌와 척수)의 질환과 일부 말초신경에 생기는 질환을 치료. 특히 뇌혈관질환, 뇌종양, 척추 및 척수질환, 신경계 외상, 선천성 및 발달성 신경계 기형, 말초신경질환 등의 수술적 치료를 하고 있다.

신경외과는 첨단 미세수술 현미경, 뇌 및 척추 내시경, PET, 레이저 등의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활발히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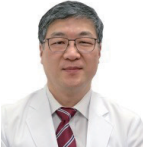


김형식 과장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석사 및 의학박사

(전) 인천 IS한림병원 신경외과 과장

진료분야 : 대뇌동맥류, 경동맥협착증, 뇌혈관협착증, 외상성뇌질환, 뇌혈관질환,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병, 두통, 어지럼증



김재명 과장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교수

진료분야 : 뇌출혈, 뇌경색, 뇌혈관기형, 뇌종양, 미세수술 및 혈관내수술, 두통, 어지러움, 두부외상, 뇌경색 색전술



박영우 과장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광주기독병원 척추뇌 신경외과 과장

진료분야 : 목 디스크 탈출증, 허리디스크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 분리증, 척추 골절, 골다공증, 뇌혈관질환, 두부외상



이성규 이사장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現 대한병원협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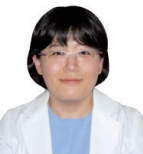
진료분야 : 뇌혈관질환, 뇌종양, 신경통증, 뇌졸중

<마취통증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는 크게 수술 중 마취 관리, 중환자실 관리, 통증치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수술 중 마취의 분야는 뇌신경마취, 심폐혈관 마취, 장기이식마취, 산과마취, 외래마취, 소아마취, 노인마취 등이 있으며 마취 방법으로는 흡입마취, 정맥마취, 척추마취, 경막외마취 및 각종 신경차단 등이 있다.

수술 전 검사 결과와 환자 방문을 토대로 환자마다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마취 방법을 선택하여 시술하고 있다.



서정주 과장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가톨릭 중앙의료원 마취통증학과 레지던트 수료

진료분야 : 전신마취 및 부분 마취, 통증치료



이성연 과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아주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촉탁의

진료분야 : 전신부위 마취관리, 중환자 마취관리, 뇌신경 마취관리, 통증치료

<신경과>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이루어진 신경계, 이와 연결된 근육과 관련된 신체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부서.

현대인의 가장 흔한 증상 중의 하나인 두통을 비롯하여 뇌졸중(중풍), 간질 운동장애, 치매(기억력장애), 말초신경염, 근질환, 뇌염·뇌수막염, 어지러움증, 요통, 실신 등의 신경계와 관련된 신체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신경과에서는 최첨단의 진단시설과 쾌적한 의료 환경하에서 환자를 최우선으로 섬기는 정신으로 우수한 의료진이 상호 협조하여 환자의 쾌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양태호 과장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대자인병원 과장

진료분야 : 뇌졸중, 어지럼증, 두통, 치매, 말초신경병증, 파킨슨병, 떨림, 경련성질환,
뇌수막염, 이상안구운동



이영현 과장

전북대학교 의학과 졸업

가톨릭 중앙의료원 신경과 전공의 수료

진료분야 : 뇌졸중, 어지럼증, 두통, 치매, 말초신경병증, 파킨슨병, 떨림, 경련성질환,
뇌수막염, 이상안구운동

<재활의학과>

각종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생긴 사람으로 하여금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과 그의 취미, 직업, 교육 등의 잠재적 능력을 발달시켜 가능한한 정상에 가까운 또는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분야

따라서 재활의학은 예방의학, 치료의학에 이은 제3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



최영식 과장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익산원광효도병원 재활의학과부장

진료분야 : 뇌신경재활, 보바스치료, 통증스포츠재활, 물리치료, 척추손상재활,
수부족부저림근육통증, 작업치료

<치과>

치과는 치아와 그 주변 조직 및 구강을 포함한 악안면 영역의 질병이나 비정상적 상태 등을 예방하고 진단하며 치료를 도모하는 의학의 한 분야.

치아가 노화되거나 사고, 외상 등으로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 치료시기를 놓치면 저작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며 얼굴 형이 변형되거나 심미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상실한 치아를 대체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임플란트. 치아가 없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소화불량과 위장장애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어금니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오랫동안 방치하기 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권열 과장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전)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치과장

진료분야 : 보철, 치아미백, 보존, 치주치료



강현중 과장

원광대학교 치의학과 졸업

(전) 포항 유어스치과의원 원장

진료분야 : 구강검진, 치주치료, 심미치료

<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는 진단 목적의 모든 영상(X-선촬영, 초음파촬영, CT, MRI, 혈관조영술 등)의 촬영 및 판독, 이에 대한 진단 및 진료 자문의 역할, 모든 영상 진단장치를 이용한 인터벤션(중재적 시술)을 통한 직접 진료, 진단영상의 처리 및 전송 등의 영상정보 지원의 역할이다.

진료분야는 신체 각 부위별 전문진료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신경계영상의학, 복부 및 비뇨생식기계영상의학, 흉부영상의학, 근골격계영상의학, 인터벤션영상의학, 심혈관영상의학, 소아영상의학, 유방영상의학 등의 분야가 있으며 각 분야에서 영상진단 및 중재적 시술을 담당하고 있다.



이강지 과장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북대학교병원 전임의 수료

진료분야 : 위장관·뇌신경 영상의학, 흉부·복부 영상의학, 갑상선 및 도플러 초음파, 상·하복부 초음파, 뇌신경·두경부 CT및MRI, 복부 CT및MRI, 중재적 시술(인터벤션)



장숙경 과장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군산 차병원 영상의학과 과장

진료분야 : 척추, 근골격계 CT, MRI, 유방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상복부초음파



강덕식 과장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대구 보강병원 병원장

진료분야 : 척추, 근골격계 MRI 및 CT, 흉부 영상의학, 복부 영상의학, 갑상선 영상의학, 경동맥 초음파



김유미 과장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주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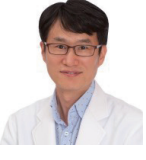
진료분야 : 유방 영상의학, 복부 영상의학, 비뇨생식기계 영상의학

<가정의학과>

연령, 성별,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학문.

가정의학 전문의는 모든 질병의 90%이상을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3년의 수련기간을 마친 전문의로, 쉽게 말해서 우리 가족의 주치의.

아플 때나 건강 할 때나, 아이가 아프거나,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가족 모두의 건강을 상담해 드리고 치료한다.



이용길 과장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주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

진료분야 : 종합검진, 예방검진, 학생검진, 노인성질환, 만성질환관리, 건강증진, 환자교육

<직업환경의학과>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학문이며, 환경의학은 우리 주변 환경에 포함된 유해인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한 학문.

직업환경의학과는 일반 건강진단 및 국가암검진은 물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유소견자들에 대해 업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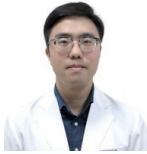


이영수 과장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영도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진료분야 : 근로자 종합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직업병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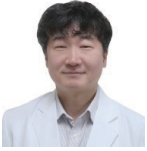


김현준 과장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천안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진료분야 : 근로자 종합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직업병 관리



한성우 과장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유성선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진료분야 : 근로자 종합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직업병 관리

<진단검사의학과>

인체에서 유래되는 모든 검체를 사용하여 검사함으로써 질병의 진단, 치료 및 예후 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안전한 수혈을 위한 혈액제제 관리, 수혈전검사, 적합혈공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자동화계(임상화학, 진단혈액), 특수계(진단면역), 미생물계, 혈액은행계, 분자유전계로 세분화되어 환자 진료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검사 결과의 검증 및 판독, 임상 자문 및 상담, 학술 연구를 담당한다.



김정태 과장

전북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사 수료

(전) 전주대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진료분야 : 진단혈액학, 임상화학, 면역혈청학, 임상미생물학



이경선 과장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원광대학교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

진료분야 : 진단혈액학, 임상화학, 면역혈청학, 임상미생물학

<응급의학과>

즉각적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요구되는 응급환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응급진료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전문 인력이 대기하고 있다.

생명위급환자를 집중처치하고 계속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전문 의료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심폐정지 환자에게 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이 최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소정일 과장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원 졸업

(전) 전남 권역응급의료센터 센터장

진료분야 : 응급의학, 외상질환, 전문심폐소생술, 독성학, 급성복통, 응급영상의학, 중환자관리



범진석 과장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검단탑병원 응급의료센터과장

진료분야 : 응급의학, 외상질환, 전문심폐소생술, 독성학, 급성복통, 응급영상의학, 중환자관리



김기열 과장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전) 제주 한라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진료분야 : 응급의학, 외상질환, 전문심폐소생술, 독성학, 급성복통, 응급영상의학, 중환자관리



이창열 과장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가천의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외래교수

진료분야 : 응급의학, 외상질환, 전문심폐소생술, 독성학, 급성복통, 응급영상의학, 중환자관리, 심혈관질환, 쇼크



이정현 과장

고려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전) 여수전남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진료분야 : 응급의학, 외상질환, 전문심폐소생술, 독성학, 급성복통, 응급영상의학, 중환자관리



김호일 과장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 석사

(전) 세종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료분야 : 소생의학



김관재 과장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전) 세종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료분야 : 성인응급의학



김 온 과장

충남대학교 의학과 졸업

남양주 한양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진료분야 : 응급의학, 외상질환, 전문심폐소생술, 독성학, 급성복통, 응급영상의학, 중환자관리

<비뇨기과>

소변을 만들어 배출하는 신장, 요관, 방광, 요도를 포함하는 요로계, 남성의 고환 및 부고환을 포함하는 생식계, 그리고 부신을 포함하여 후복막강내 발생한 질환을 다루는 학문.

세부적으로 신장, 요관, 방광, 전립선, 고환, 요도 및 부신 등에 발생한 종양을 다루는 비뇨기종양 분야, 요로의 선천성 기형과 생식기 기형 및 야뇨증 등을 다루는 소아비뇨기 분야, 요로결석 분야, 전립선 비대증, 신경인성 방광 등을 다루는 배뇨장애 분야, 여성 요실금 분야, 남성불임과 성기능장애 등을 다루는 남성의학, 그 외에 사고로 인한 외상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김효신 과장

가톨릭의과대학원 비뇨기과학 의학박사

(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진료분야 : 전립선 질환, 방광암, 요로감염, 신장결석 및 요관결석

<건강증진센터>



김효신 과장

가톨릭의과대학원 비뇨기과학 의학박사

(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진료분야: 전립선 질환, 방광암, 요로감염, 신장결석 및 요관결석

2. 동군산병원의 특성화 센터

<심장혈관센터>

심장혈관센터에는 이승훈 과장, 강동구 과장이 진료를 보고 있다.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판막증, 심부전 등을 치료하며 심전도, 심장초음파, 심혈관 조영술을 비롯하여 운동 부하 검사, 24시간 생활 심전도, 24시간 생활 혈압측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최신형 심혈관조영촬영기(Angiography System)를 이용하여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증환자에게 관상동맥 중재시술(풍선확장술,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

<뇌혈관센터>

뇌혈관센터에는 이성규 이사장, 김형석 과장, 양태호 과장, 이영현 과장이 진료를 보고 있다.

뇌혈관 조영실과 MRI 촬영실, 뇌혈관 수술실등이 한곳에 유기적으로 공존함으로써 급성기 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검사와 시술, 처치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학병원급 전문의료진의 영입으로 신경외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와의 협진체제로 구축되어 있다.

<소화기내시경센터>

소화기내시경센터에는 문세권 과장, 박민우 과장, 구하라 과장, 김보형 과장, 송우건 과장, 남정자 과장, 박지송 과장이 진료를 하고 있다.

5명 중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현대인에게 자주 발병하는 소화기 질환은 숨어있는 암까지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동군산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에서는 소화기내시경과 비수술적 진단 및 치료법인 ERCP, EMP, ESD를 이용한 내시경 시술을 시행,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물론 빠른 회복으로 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유방갑상선센터>

유방갑상선센터는 심재훈 과장이 진료를 보고 있다.

여성암 발병률 1,2위를 다투는 유방암과 갑상선암을 중심으로 각종 여성질환의 통합진료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여성 환자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있다.

유방·갑상선센터에서는 FDA, MFDS를 승인 받은 세계 최고의 유방촬영 장비인 Selenia 1 system (DR)을 도입해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통합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척추관절센터>

척추관절센터에는 이종윤 과장, 장봉준 과장, 박영우 rhkwddl 진료를 보고 있다.

증상, 연령, 발병기간, 환자상태 등 세심한 관찰을 통한 적절한 치료가 관건인 척추·관절질환은 운동치료, 초음파 주사치료 같은 비수술 중심의 척추·관절 통증치료를 진행하고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합병증과 후유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최소침습척추수술 및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건강증진센터>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일반 및 채용검진은 물론 국가암검진, 기업체 특수검진, 패키지검진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전북지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동군산병원 건강증진센터는 바쁜 직장인을 위해 오전 7시부터 검진을 시작해 오전에 끝내는 조조검진을 시행중이다.

또 유방촬영, 초음파검사, 산부인과 검사로 이뤄지는 여성존(ZONE)을 신설했다. 전문 상담간호사와 전문의 상담을 통한 개인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외국인 진료센터와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까지 준비하고 있다.

<응급의료센터>

8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상주해 지역 내 골든타임을 책임지고 있다.

선진화 된 응급의료체계로 심·뇌혈관 중증 응급환자와 외상환자에 신속하게 대처, 응급환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정확한 진단과 24시간 응급진료 및 응급수술을 담당하고 있다.

<인공신장센터>

구정상 과장이 진료를 보고 있다.

혈액투석실과 복막투석실로 운영되고 있는 인공신장센터에서는 고성능 혈액투석장비 FMC 5008S 도입으로 정확하고 안전한 혈액투석이 가능하고, 장시간 병원에서 보내는 환자들을 위해 집이나 다름없는 편안한 공간마련에 치료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호흡기진료센터>

김관형 과장, 오윤정 과장이 진료를 보고 있다.

호흡기진료센터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와 간호사가 배치되어 호흡기 환자를 집중적으로 진료하고 있다.

호흡기진료센터의 진료대상은 상기도 감염 환자,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을 보이는 환자, 발열 등 호흡기증상을 보이는 환자, 기타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호흡기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인터벤션센터>

이강지 과장이 진료를 보고 있다.

인터벤션은 대학병원급에서만 시술하는 고난이도 시술로써 전문의의 전문장비로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치료가 가능하다.

수술 대신 비수술요법을 희망하는 환자들의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인터벤션센터는 기존의 개복술이나 광범위한 피부절개 없이 영상의학을 기반으로 한 외과적 치료가 가능해졌다.

<재활치료센터>

최영식 과장이 진료를 전담하고 있다.

재활치료센터에서는 재활의학 전문의, 작업치료사, 재활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의 의료진이 하나가 되어 환자와 함께 호흡하는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각 분야별 전문의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재활환자에 대한 차별화 된 진료를 시행하고 있고, 환자상태에 따른 최적의 재활 프로그램을 일대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감염병안심센터>

동군산병원은 현대인에게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각종 감염병에 대비해 감염병 안심센터를 갖추고 있다.

메르스나 코로나-19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감염병 환자를 안전하게 격리시켜 치료할 수 있는 음압병실을 갖추고 있어, 다른 환자들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동군산병원

전북 군산시 조촌로 149

www.donggunsanhosp.co.kr

063-440-0300



(주)박대종합건설, (유)양지해양개발 이기송 대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글 | 채명룡
ml7614@naver.com

군산의 명품 ‘박대’가 종합건설회사의 이름으로 나왔다. 생선 이름이 건설회사의 간판으로 새겨지다니 매우 이례적이다. 군산을 대표하는 여러가지 지명과 명칭이 있지만 ‘박대’가 군산 앞 바다에서 나는 특산물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래서일까. 이 지역민들이라면 모두가 호감을 느끼는 회사 이름이 될거라 예상된다.



20여 년 전, 보증 채무로 회사를 모두 날렸으나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진 이기송 대표.

그가 농촌 활력 사업의 중심지로 친근감이 있는 성산면의 간치말 마을 한 쪽에 사업장을 짓고 지난 5월 16일 개업식을 가졌다.

이 대표는 수중공사와 해양공사를 전문 영역으로 재도약하려는 사업 비전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박대'가 바다에서 살듯 사업의 방향성이 뚜렷하다는 소리도 듣고 있다.

폐업과 창업, 그리고 재도약을 거치면서 해양공사, 수중공사의 영역을 굳혀 나가고 있는 게 바로 (주)박대중합건설, (유)양지해양개발이다.

바다와 관련된 관급공사의 설계와 시방서 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려는 그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증채무로 전 재산을 날렸지만 끝까지 책임진다

서광중합건설, 화담건설, 양지개발 등 3개 회사를 운영하던 지난 2003년, 거액의 채무 보증을 섰던 저축은행이 파산되면서 계속해서 압류가 들어왔다.

실제로 돈을 쓴 채무가 아니었기에 그 돈을 갚다 보면 '깨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사업체가 망하거나 없어지면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채무 변재를 회피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기송 대표는 20여년 전 회사를 폐업하는 어려움을 겪으

면서 일을 해준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줬다.

서광중합건설, 화담건설, 양지개발 등 3개 회사를 운영하던 지난 2003년, 거액의 채무 보증을 섰던 저축은행이 파산되면서 계속해서 압류가 들어왔다.

실제로 돈을 쓴 채무가 아니었기에 그 돈을 갚다 보면 '깨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사업체가 망하거나 없어지면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채무 변재를 회피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기송 대표는 20여년 전 회사를 폐업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을 해준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줬다.

“그 당시 ‘양지개발’을 해양, 수중공사를 하려는 생각으로 ‘해양’을 중간에 넣어서 ‘양지해양개발’이라는 전문건설회사로 다시 만들었죠. ‘양지’라는 이름을 남겨서 혹시라도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 분들이 다시 찾아 올수 있도록 한거죠.”

3개 회사를 폐업한 이후 3년이 지난 2006년 면허가 철권뿐인 전문건설업체를 만들었다. 그러자 일거리가 넘쳐났다. 토공, 수중, 석공 등 면허 종목이 늘어났다.

먹고 살기 힘들 때였다. 장비업체, 인력업체 등등 값야아 돈이 산더미였지만 벌리는 대로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했다.

그런 마음이 통했을까. 단종 사업자였지만 선배가 운영하는 송산건설을 비롯한 주변 건설회사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주었다. 참, 고맙고 고마운 일이다.



‘박대’종합건설이라고요?

요즘 건설 경기가 심상치 않다. 관급공사 위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기송 대표 또한 위기를 맞기는 마찬가지이다.

군산과 전북지역에서 해양과 수중에서 벌어지는 공사에 대하여 전문 영역을 지켜나가고 있는 (유)양지해양개발. 전문건설이라는 좁은 영역에서 벗어나 ‘박대종합건설’을 창업하고 재도약의 기틀을 만들었다.

군산을 대표하는 건설회사로 성장시키자는 마음을 담아서 군산의 명품 ‘박대’라는 이름을 건설회사명으로 생각했다. 건설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시점에 종합건설의 창업은 이례적이다.

“10억 이상의 일은 종합에서 종합으로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거든요. 해양공사, 수중공사를 전문으로 키워왔으니까 공사비가 커진다해도 충분히 소화해 낼수 있다고 봅니다.”

이기송 대표는 2년여에 걸친 준비 끝에 지난 5월 16일 성산면 산곡마을에 사무실과 주택을 짓고 양지해양개발과 박대종합건설 사무실을 이전했다.

자연환경이 수려한 이 자리에서 건설사 대표가 직접 현장을 뛰면서 공사의 품질을 높이려고 계획중이니 밝은 날들이 있으리라.

해양 토목, 수중공사에서 독보적 위치

(유)양지해양개발이라는 전문건설업체를 만들어 해양공사, 수중공사와 인연을 맺은지도 벌써 20여년이 흘렀다.

현재 공사 중인 관급 공사 현장도 대부분 바다와 인접해 있다. 고군산군도 장자선 도로개설공사(2023년 착공), 고군산군도 무녀선 도로개설공사(2023년 착공), 신덕~개정간 도로 확포장공사(2023년 착공), 대장도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2025년 착공) 등등 현장을 발로 뛰는 중이다.

그는 일을 하면서 설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전혀 현장감이 없

는 사례가 많다는 걸 알았다. 시방서를 현장에 맞게 바꾸려면 사례를 수집해야 했다.

설계도 마찬가지였다. 물 때를 감안하는 수중 공사 시간을 잡아줘야 하는데 일을 하기 적합한 물 때가 언제인지 전혀 반영되지 않음을 알았다.

이른바 ‘조석표 : 매일의 고조(high water)와 저조(low water)의 시간과 높이에 대한 예보값을 표로 만든 것’에 맞춰서 설계가 나와야 공사비가 헛되게 들어가지 않는다.

주간 공사를 해야 하는지, 야간 공사를 해야 하는지 구분해줘야 하고 그에 따라 품셈도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었다.

“바다 쪽의 공사에 대해서 시방서는 물론이고 품셈 등 현실 여건과 동떨어진 설계를 바로 잡는 개척자의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게 바로 ‘박대종합건설’이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이기송 대표



공사 안전관리도 책임지는 이기송 대표

건설사업 2대째, 장인정신으로 현장 뒤편

국가 기관에 근무하다 퇴직하고 나와 중앙건영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했던 아버지로부터 호된 경영 수업을 받았던 이기송 대표.

중앙건영은 80년대 전북권에서 시공실적 1위를 할 정도로 든든한 회사였다. 말하자면 2대 건설사업가 집안인 셈이다.

“아버지는 사업을 키워나갔지만 저는 바다 공사에 대해서 한 획을 그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전문성을 가진 건설회사, 모범적인 해양 전문 회사가 하나쯤 있으면 이 지역에도 도움 되지 않을까요.”

제일초와 남중, 상고, 호원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토목특급기술자 자격을 갖추었다.

20대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앙건영에서부터 일을 배워 약관의 나이를 넘어서자마자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을 운영하였던 사업가 기질이 남달랐던 그였다.

거래은행의 파산으로 청춘을 바친 3개 회사를 폐업 정리하고 모든 걸 내려놓았던 그가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었다.

“하루 아침에 회사를 모두 정리하고 알거지와 다름없었을 때 주변에서 일을 하라고 돈도 빌려주고 일거리도 가져다 주었거든요. 그런 고마움을 갚으려면 제가 수중, 해양 분야에서 만큼은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작은 돈이나 큰 돈이나 모두 소중하다. 혹시라도 공사비를 못 받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름을 이어가려는 뜻이 담긴 ‘양지해양개발’. 그리고 수중 공사, 해양 공사를 지향하려는 의미를 담은 ‘박대종합건설’.

성산면 산곡리 간치벌 마을에서 두 회사가 활짝 피어날 날만 남았다.



남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초심’을 그대로

장비는 물론 돈이 되는 것들은 모두 팔아서 인건비와 장비대 등 일꾼들의 돈을 갚으려고 했던 의리의 사나이 이기송.

“나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보답하자”는 그의 초심이 그대로이니 그와 거래하는 모든 사업자들 또한 좋은 기운을 받게 되리라.

“혹시라도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연락해주시면 성실하게 응대하려고 한다.”는 그의 마음이 싱그러운 봄바람을 닮았다.

아내 이현정씨와 딸 윤지양(프로골프 지망생)이 함께 간치벌 마을 한 칸에서 꿈을 심고 있으니 사업은 또한 봄 별처럼 성장할 것이라.

군산시 성산면 간치벌3길10(산곡교회 옆)
(주)박대종합건설, (유)양지해양개발
(063)454-0724 / 452-3339



천연염색 채경화 작가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작업이자 힐링”
새금강문화협동조합 참여, 새로운 작업 기대

글 | 최승호
gsport11@naver.com

나에게 염색이란-채물드림공방!

“매일 함께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염색은 내게 늘 필요한 비타민 같은 존재이자 작업이다. 나 자신과 한 몸이라는 생각이다.” 천연염색 전문가인 채경화 작가의 첫마디다. 채 작가는 “염색을 접할 특별한 기회가 있었던 건 아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의 색을 좋아했고 남달리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며,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도 색을 내는 것이나 뭔가를 만드는 것도 좋아했던 기억이 유달리 많이 떠오르곤 한다.

”채 작가는 2019년부터 조촌동 경포초등학교 앞에서 ‘채물드림공방’을 열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운영해오고 있다. 대략 15평 정도의 그녀만의 작업공간이자 작품 전시장 역할을 하는 소중한 공간이다.



공방내부



공방내부

“좋아하던 취미가 제 직업과 경제활동 영역으로 차츰 이어졌다. 공방 이름은 아들이 고심 끝에 만들어 엄마에게 헌정한, 소중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며 웃는다.

채 작가는 가족들의 지원이 엄청나다. 든든한 외조를 마다하지 않는 남편과 1남 1녀 자녀들도 멀리 장가가고 시집을 갔어도 엄마에 대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염색작업 과정뿐만 아니라 작품의 색감, 포장 등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해준다. 나뭇잎 등 천연재료를 활용한 에코염색 분야가 있다. 남편이 에코염색에 대해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 조언을 해줄 때마다 작업 파트너로 생각될 정도다.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며 얼굴 가득히 환한 미소를 띤다. 그녀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절로 느껴진다. 채물드림공방은 그녀의 염색 인생의 모든 것이 녹아있고 살아있는 역사적 공간이 된 것 같다.

네트워크참여-도전과 열정

채 작가는 몇 년 전 ‘나주천연염색회원’에 등록했다. 이를 계기로 군산지역을 넘어 천연염색 관련 전국적인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때 천연염색에 대해 많은 관심과 작업이 일어났었지요. 한 마디로 전국적인 바람이 불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작가들이 나오고 직접적인 염색작업과 함께, 생활한복 제작, 남녀노소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면으로 많은 활동들이 이뤄졌죠. 제가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던 시기이기도 해요.

‘제조상궁’이라는 천연염색 작가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약 3,300여 명의 작가들이 활동하는 전국적인 모임이라고 소개한다. 제조상궁의 워크숍에 3차례나 참여했고 2024년 고창의 천연염색 워크숍에도 2회 참여했다. 새로운 작업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여전히 식지 않는 현재 진행형이다.



예코염색



무형문화재 이수증



광주빛고을작가대전 장려상 수상작

현재 '천연염색 3급 지도사 자격증'과 '토털공예 지도사 자격증', 'POP글씨 강사 수료증' 등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2023년 김제야행에 참여했다. 이어 2023 임실산타축제, 2024 삼례딸기축제 등 본격적으로 인근 지역을 누비기 시작했다. 2024 나주영산강블루리버 전시에서는 참여작가증을 받았다.

2024 김제꽃빛누리축제, 금산사뮤직페스티벌, 김제청운사연꽃축제에서 참여작가로, 판매자로 활발히 활동해왔다. 특히 2024년 제1회 광주빛고을작가대전에 참여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작가의 노력에 대한 평가와 결실이 하나씩 맺어지는 큰 계기가 됐음은 분명히 보인다.

채 작가는 군산을 대표하는 군산시간여행축제에 3회(2022~2024년), 군산야행에 2회(2023~2024)에 참여했다. 군산에서 활동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높다.

“다른 지역의 축제나 행사에 참여하면 자연스레 우리 군산과 비교돼요. 주최측에서 참여작가들의 말과 의견에 귀기울이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피드백과 소통이 잘 된다는 걸 피부로 느껴요.” 군산축제에 대한 작가의 기대와 아쉬움이 느껴진다.

새로운 도전-새금강문화협동조합

채경화 작가는 일상적인 작업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펼쳐

지는 5일 장터의 게릴라 전사다. 군산 대야시장과 김제시장의 장터를 찾아 그녀의 작품을 홍보하고 판매한다. “일단 장터는 재밌어요. 판매자나 고객들의 인간적인 모습이 진솔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꾸준히 하다 보니 현지 상인들과도 부담 없이 친해졌어요.”

열심히, 재미있게 하니 수입도 꽤 만만찮다고 영업실적도 살짝 귀땀해 준다. 부지런하고 억척스럽기도 하다.

채 작가는 올 1월에 결성한 ‘새금강문화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조합은 군산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공예작가 및 로컬 크리에이터가 모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작가들의 작업과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었다.

“조합결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5일전통시장 부스



작품사진



전북차대전 참여

다른 작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성과를 내고 싶다.”며 “작업은 내게 먼저 힐링과 행복감을 내주는 것 같아요. 여러 작업과정을 힘들게 치르면서도 순간순간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은 선(善)한 욕심이 솟구치게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채경화 작가의 아름답고 변화무쌍한 자연색을 제대로 담은 멋진 천연염색 작품이 새롭게 우리 앞에 펼쳐지길 독자들과 함께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채물드림공방]

*군산시 조촌2길 93번지
*010-2634-7241

‘희망나눔 장애인 주·야간 보호센터’

김면숙 센터장

글 | 오성렬
poi3275@naver.com

가족의 도움 없이는 사회 적응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 훈련을 표준화하고 개별 교육을 강화하여 정서적 보호와 함께 신변자립, 재활치료, 교육과 훈련, 여가문화 등에 걸친 사회복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9년 1월 설립된 ‘희망나눔 장애인 주·야간보호센터(이하/센터)’. 전문적,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 지향으로 가족의 보호 부담을 경감 시킴으로서 스트레스 해소 및 사회 참여를 확대, 건강한 가족 기능을 회복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김면숙 센터장이 소개하는 센터의 운용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 *일상생활지원 : 일상생활훈련, 사회기능훈련, 생일파티 등
- *사회재활훈련 : 현장체험학습, 외식 나들이, 사회 적응, 공연 관람 등
- *재활지원 : 재활운동, 구강검진, 산책, 재활요가, 농구, 점핑, 뉴스포츠, 힐링농장, 건강댄스 등
- *교육재활 : 맛돌체조, 도예, 난타, 뜨개, 미술심리, 음악힐링, 인권교육, 안전교육, 화재예방교육, 식중독예방교육, 성교육, 생활예절교육 등
- *야간안심돌봄사업 : 일상생활지원, 신체재활, 교육재활(미술, 음악활동, 놀이, 감각, 신체, 인지프로그램 등)

-수용 대상 및 연간 프로그램 참여 인원

- *장애 유형 : 중증장애인(지적발달장애 및 뇌병변 중증장애)
- *총인원 : 21명(남12/여9)
- *연령대별 : 10대 2명, 20대 11명, 30대 4명, 40대 3명, 50대 1명





-프로그램별 효과

- *일상생활지원 : 자립심 향상, 개인위생 관리 능력 개선
- *사회재활훈련 : 외부 환경 적응력 강화, 대인관계 기술 향상
- *재활지원 :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스트레스 완화
- *교육재활 : 표현력 및 자기 이해 능력 향상, 정서 안정 기여
- *야간안심돌봄 :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 이용자의 안전한 야간 생활 보장

이상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둔다는 측면에서는 보람도 있지만 센터의 경영이 녹록지 않다는 것 역시 문제로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2004년 지방분권화 이후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비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그 예산이 15명 기준으로 연간 1,680만원(월140만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이러한 열악한 여건하에서 장애인들의 이용 차량인 12인승 승합차량은 17년 된 노후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부족으로 구입을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또한 시설의 월 임대료 지급도 시급한 상황인 데다가 센터 주변에 지정 주차구역이 없어 차로로 먼 거리를 걸어 이동하거나 좁은 골목에 힘들게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등 이용인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서 인근 이면도로 및 공터에 장애인 주차구역 추가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들려준다.

따라서 김 센터장은 향후 센터 임대료 절감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센터 이전, 이용자 중심의 개별화 교육과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복지 모델 구축과 함께 장애인 인권 증진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 새만금 장애인예술제 난타 공연 참가(2년 연속 참여),
 군산시 장애인 인권영화제 식전 난타 공연 참가(3년 연속 참여),
 중증장애인 가족 인식 개선사업 '아우름 한마당' 난타 공연 참가(3년 연속 참여),
 완주소방서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초청 난타공연 진행,
 지역사회 난타공연(여울림노인복지센터 초청공연) 등의 홍보 에도 주력하고 있다.



원주 소방서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초청공연



어울림 노인복지센터 초청공연

특히 센터의 난타 프로그램은 매년 2~3회 외부행사에 초청되어 공연을 펼치며 이용인들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소중한 경험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 난타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가락 퓨전장구난타' 박경옥 원장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주2회 2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때마다 흥에 겨운 아이들이 소리 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자신에게 달려와 안기기도 하는 등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것을 보면서 더없이 흐뭇하고 보람이 느껴진

다며 센터의 아이들은 모두가 나이를 떠나 순수하고 소박한 천사들이라고 들려준다.

'희망나눔 주·야간보호센터'
군산시 죽성로7 동일빌딩3F(장미동)
이용문의 063)468-6032 / 010-8800-3063



스스로 읽고, 스스로 느끼며 연주하는 리틀 피아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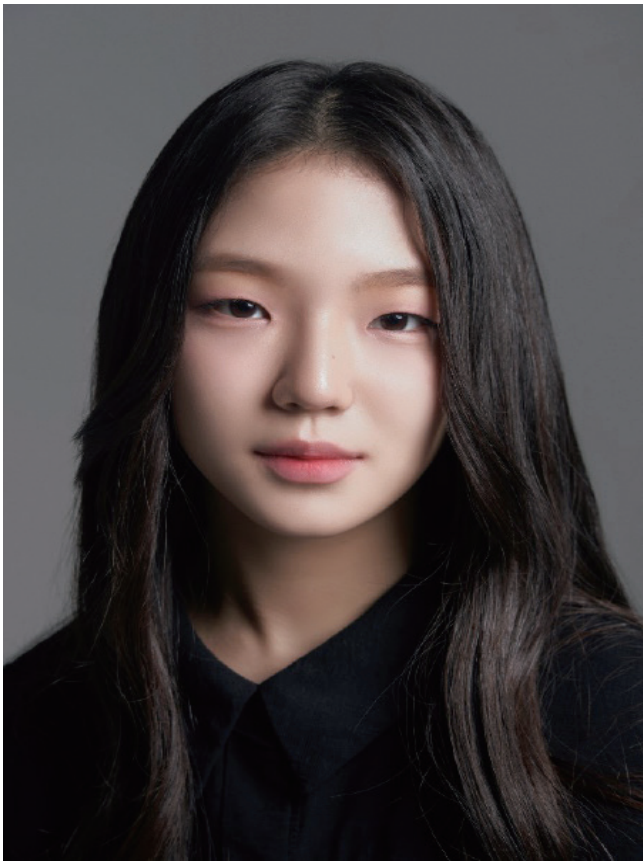
서울예고 1학년 고유담

글 | 이영미
ycm1022@hanmail.net

서울예술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고유담.
그녀의 음악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이야기다.

여섯 살,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던 어머니 곁에 자연스럽게 머물던 시간들 속에서 유담은 처음으로 건반을 만졌다.

특별한 계기보다도, 삶의 일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든 음악.
태아였던 시절, 어머니가 즐겨 듣던 음악과 연주하던 피아노의 울림도 그녀의 첫 감각이 되었을지 모른다.



그녀의 음악이 깊어지는 이유는, 그 시작에 단순한 재능이 아닌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담은 말한다.

어머니에게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성실함'이라고. 단지 말로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행동으로 성실함을 먼저 보여준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다.

어린 시절, 콩쿠르를 준비하며 친구들 악보에 빼곡히 적힌 지도 내용을 보며 울었던 유담에게 어머니는 "잘해서 그런 거야"라는 한마디와 함께 간단한 포인트만 알려주었다.

그 순간 유담은 스스로 악보를 읽고, 연구하며 연주를 완성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지금도 그녀는 혼자서 곡을 분석하고 감정을 그려내며 연습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작년, 유담은 다양한 콩쿠르 무대를 경험하며 자신 안의 변화를 느꼈다.

입시 준비와 병행하며 참가한 여러 대회에서 대상과 입상을 연이어 경험했고, 그 결과는 곧 연습의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음영재음악콩쿠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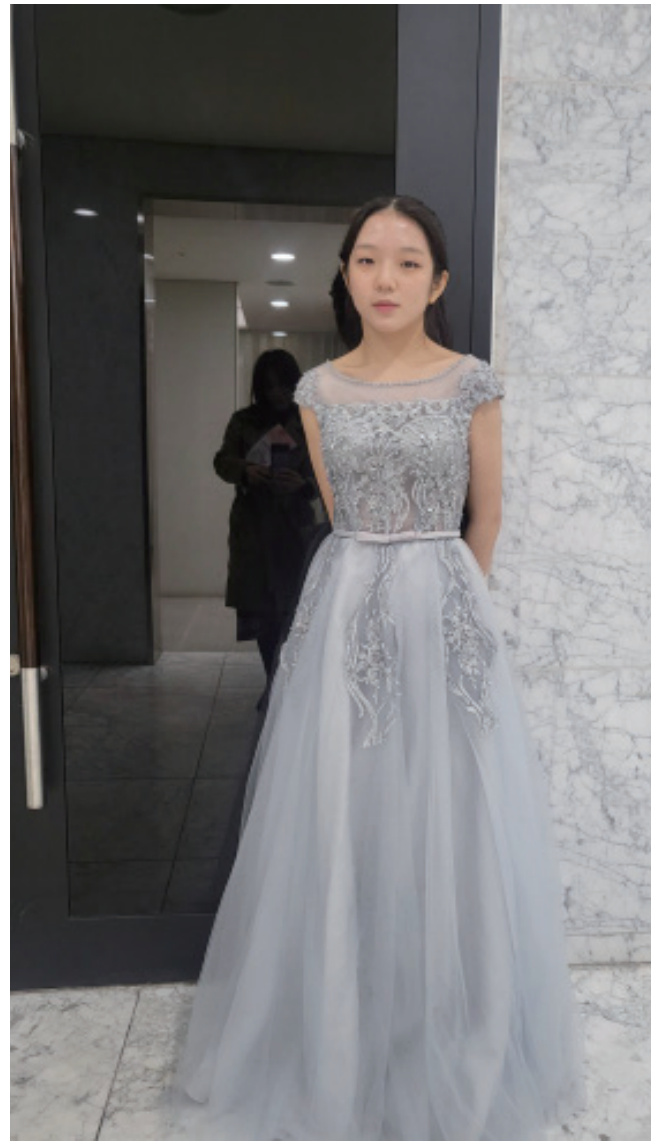
지방 대회지만 쟁쟁한 경쟁자들과 까다로운 심사로 잘 알려진 이 무대에서 유담은 처음으로 '즐기는 연주'를 경험했다.

결과는 전체 대상 수상. 유담에게 있어 그 무대는 단순한 수상 이상의 의미로 남아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현재 유담을 가르치고 있는 김고운 교수가 있다. 단순히 기술을 지도하는 스승이 아니라, 그녀가 겪는 감정의 기복과 성장의 흐름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존재. 슬럼프에 빠졌을 때, 좌절감에 무기력해질 때도 김고운 교수는 따뜻한 조언과 기다림으로 유담의 마음을 다시 음악으로 돌려주었다.

유담은 말한다. "교수님은 저를 정말 많이 이해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다시 집중할 수 있었고, 계속 음악을 좋아할 수 있었어요."





유담의 음악 철학은 분명하다.

‘곡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찾아내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 유담은 연습할 때마다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감정의 결을 분석하는 데 집중한다.

손끝에서 나오는 소리 하나하나에 설득력을 부여하고 싶다는 열망은, 단순히 기교에 머무르지 않는 깊이 있는 음악을 만들어 낸다.

음악 외적으로는 새벽 산책이 유담의 감성을 채워주는 시간이다.

고요한 도시의 공기 속을 걷다 보면 감정이 정리되고, 복잡했던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 속에서 새로운 다짐을 만들고, 자신을 단단히 다듬어가는 시간 역시 그녀의 음악을 구성하는 또 다른 장면이다.

피아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새벽길을 걸으며 내면을 다듬는 이 소녀가 언젠가 자신만의 언어로 이 세계를 위로하는 연주자가 되기를. 그녀의 음악이 삶의 순간마다 감정과 공감이 되어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머물기를 바란다.

고유담이라는 이름이, 음악을 말하는 손끝으로 오래도록 반짝 이기를.



'손편지로 전하는 감성'

제8회 군산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정리·사진 | 김혜진
dhik0324@hanmail.net

'제8회 군산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이하 '손편지축제')가 9월 26일~27일 군산 우체통 거리(군산우체국 일원)에서 개최한다.

'손편지축제'는 2018년 시작돼 매년 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축제가 개최되는 군산 우체통거리는 침체된 도심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조성됐으며, 2020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간한 '2020 도시재생사업 30선'에 성공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축제를 주관하는 군산우체통거리경관협정운영회(회장 배학서) 역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공동체로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유익하고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축제 준비부터 운영까지 세심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3월 19일에는 성공적인 축제를 기원하는 의미로 발대식이 열렸다. 이번 발대식은 '손편지축제'의 본격적인 준비를 알리는 자리로, 축제의 개요와 주요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협력 단체와 참여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송미숙 시의원 ▲군산우체국 유현아 국장 ▲군산시 도시재생과 ▲군산 우체통 거리 경관협정위원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뜻을 함께했다.

스마트폰 속의 각종 메신저들에는 없는, 종이 위로 썼다 지웠다 하며 마음을 담아 보냈던 손편지의 추억과 낭만을 느껴 보자.



우체통거리 벽화



플리마켓



우체통거리



지난해 축제

우체통을 주제로 한 특별전, 기념우표 제작 등 다채로운 볼거리 선보일 예정

올해 축제는 우체통 거리 곳곳에서 손편지 쓰기, 느린 엽서 보내기, 우표 만들기 등 체험 행사를 운영하며, 우체통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와 기념 우표 제작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우체통 그리기 ▲공예 체험 ▲감사 편지 쓰기 ▲우체통거리 투어 ▲나만의 우표 만들기 ▲우체통 거리 상가 체험 상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전국의 우체국 이용자와 손 편지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특별 전시와 기념 우표 제작, 기념 소인 제공 등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신나는 예술버스' 사업 연계한 문화예술 공연 협의 중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신나는 예술 버스' 사업과 연계한 문화예술 공연도 협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체통거리에는 익살스러운 우체통과 벤치가 놓여져 있다





한 상가 앞에 놓여진 조형물

통합문화이용권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는 올해 축제를 통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화누리카드 이용 대상자들은 축제 기간에 다양한 체험과 기념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군산시는 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우정사업본부 및 전북 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전국 우체국을 통한 홍보 및 참여 유도를 추진하고 있다.

정삼권 도시재생과장은 "디지털 시대에도 손편지가 주는 감성과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축제를 마련했다"며 "제8회 군산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가 손편지 문화 확산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군산시 우체통거리 홍보관

군산시 우체통거리2길 19

063-443-1020

매일 10:00 ~ 18:00

제8회 군산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9월 26일~27일 군산우체국 일원에서 개최

군산시 우체통거리1길 20

문의 063-454-4191 (군산시청 도시재생과)

인근 공영주차장 마련(군산시 중앙로 149)

중세미술 4.고딕미술

중세 미술의 마지막 시간 ‘고딕미술’에 대하여 알아보자. 고딕 미술은 12~16세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당시에는 이러한 건물을 고딕이라 부르지 않았다.

오프스 모데르눔, 즉 현대적 양식 또는 오프스 프랑키제눔, 즉 ‘프랑스 양식’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아래 ‘고딕’이라는 말은 16세기 이탈리아인들에게서 유래 되었으며, 476년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고트족의 예술’이라 비꼬며 부르던에서 기원한다.

대형화된 중세 교회의 큰 건축은 그 크기부터 신에 대한 간절함과 위엄을 나타냄으로 인간이 받는 느낌에 감동을 고조 시키려 했을 것이다.

고딕 건축의 뾰족한 첨탑과 스테인드글라스, 성서 관련 조각, 성경 필사본 모두 중세 미술의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신과의 일체감에 대한 반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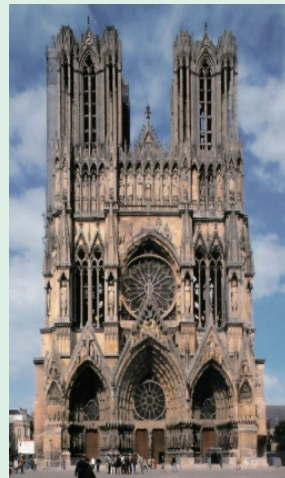
특히 고딕 건축의 교회 벽면은 유리로 만들어진 창살과 격자 모양이 강조됨으로 하늘(신)을 향해 다가가려는 방향성을 더 강화하였다.



샤르트르 대성당

이러한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모델은 프랑스 사르트르에 있는 ‘사르트르 카톨릭 대성당’(1145년)이다. 지면으로부터 37미터 높이에 이르는 사르트르는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다.

이곳에는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당시 입고 있었다는 옷이 보관된 장소로도 명성이 있는 곳이다. 사르트르에도 시련이 있었는데 1194년에 화마로 인해 소실되어 12세기말~13세기 초에 걸쳐 다시 재건되었다.



◀노르담 랭스 대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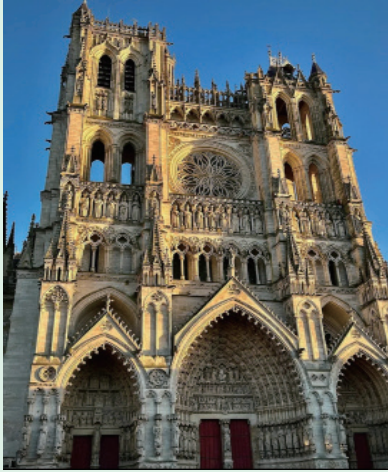
▶내부 '장미의 창'

프랑스 후기 고딕 양식의 진수는 ‘노르담 대성당’이다. 고딕 전 시대에 걸쳐 건설된 노르담은 최초의 고딕 성당 가운데 하나이며, 현재도 파리 대주교좌 성당으로 사용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이다.

이 성당은 신도석의 높이가 사르트르 성당에 버금가는 38미터이다. 이렇듯 건물이 높아지자 건축의 견고함을 위해 세계에서 최초로 ‘공중 부벽(Flying Buttress)’을 시공하게 된다.

‘공중부벽’이란 외벽을 지탱하는 반 아치형의 석조 구조물로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벽면은 공간의 여유를 갖게 되었고, 안정적으로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었다. 이것은 또한 고딕의 스테인드글라스를 도입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게 된다.

부벽으로 인하여 높은 창문을 내는 것이 가능해진 벽면은 ‘첨두 아치(끝이 뾰족한 형태)’형태의 창문으로 외관이 장식되며, 그에 따른 장미창과 조각 장식의 환상적인 매치는 건축 내부로 들어오는 빛과 만남으로 웅장함을 만들어내기에 이른다.



아미앵 대성당

‘아미앵 대성당’은 고딕 건축의 진수를 자랑하는 또 다른 사례이다. 앞서 나타난 고딕의 특징에 원형, 아케이드, 클로버잎 모양 등을 더한 기하학적 모양을 반복시켜 장식적 효과를 극대화시킨 사례이다.

이렇듯 오랜 시간 사람의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고딕 미술품들은 자국민과 지역의 시민 긍지를 높이는 자부심의 상징이었다. 이러한 건축 내, 외부에 이르러 고풍의 미를 더하는 미술 분야는 조각, 스테인드글라스 그리고 타피스트리(텍스타일)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벽걸이 형태의 직조 예술품을 들 수 있다.



◀ 1. 조각



▶ 2. 스테인드 글라스



3. 타피스트리

신을 향한 열망을 건축으로 꽃을 피워온 중세는 고딕 미술 시대를 지나서 말기에 다다를 때 초기 르네상스 미술의 태동이 이탈리아 지역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중세 말기는 앞서 언급한 중세 고딕 건축 미술의 특징들이 점점 쇠하고 있었다. 이탈리아인의 유연함 때문일까. 그간 잠들었던 자연스러운 인간미를 보여준 고대 이집트 미술이 그들의 세포 속에서 다시 재생된 것이다.



◀조토 ‘피에타’



▶마르티니 ‘수태고지’

보존이 어려웠던 채색 사본이 늘어나기 시작 했는데, 중세 말기 대표적 화가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조토’와 ‘마르티니’가 있다. 중세 말기 회화의 소재는 시대적 흐름을 이어가며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소 딱딱하게 경직되며 정적이었던 초기 중세 회화가 아닌, 부드럽우며 섬세한 감정 표현과 자연스러운 인물 묘사가 돋보이는 ‘성상화’가 재출현 했다.

회화에서 나타나는 각 인물들의 감정 표현과 서정적인 분위기는 중세의 무겁고 엄격함을 벗어나 인간미가 다시 회귀하는 미술사의 큰 변화였다.

이 변화의 흐름은 르네상스 미술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미술의 거장들을 이끌어내는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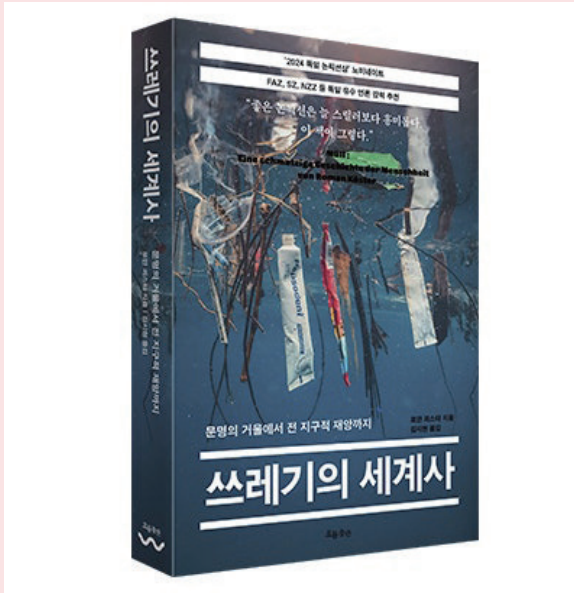
다음 달 기고를 앞둔 르네상스 미술은 5부작을 앞두고 있다. 한 걸음씩 발을 옮기며 ‘르네상스 미술’의 세계로 입문해 보려한다.



배수정
서양화 작가
국립군산대학교 서양화 강의

하찮은 직업, 하찮은 사람은 없다!

로만 쿼스터, 김지현 옮김. <쓰레기의 세계사> 흐름출판, 2024.



아침에 아파트를 나설 때마다 쓰레기 분리 수거장을 지나게 된다.

분리 수거장에 적여구산의 형국으로 쌓인 쓰레기를 보면서 자연스레 드는, 아니 들 수밖에 없는 생각! 저 쓰레기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게다가 생각은 ‘꼬꼬무’로 이어져,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배출되는 양만 해도 저 정도인데 군산과 전북 그리고 한국 사회가 쏟아내는 하루 쓰레기량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아연한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

더욱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최소한 매일 저 정도 양의 쓰레기가 배출될 텐데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되면, 인류가 쓰레기로 망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 전혀 억측이나 궤변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실제로 “세계은행의 연구에 의하면 쓰레기의 문제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 가정에서 버린 쓰레기의 양은 20억 1천만 톤으로 추산되며 우리들이 매일 내놓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에펠탑 100여 개 무게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050년에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만 34억 톤에 달할 것”(10면)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류의 미래 운명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관심은 부족해 보인다.

이번 독서 칼럼 대상 텍스트로 <쓰레기의 세계사>를 소환하게 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이다.

이 책은 쓰레기 발생의 역사와 자본주의 경제와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밝히는 ‘쓰레기사 분야의 가장 탁월한 책’이라는 고평을 받을 정도로 쓰레기의 문제를 정치하게 탐사하고 있는 저술이다.

쓰레기의 역사를 근대 이전, 산업 시대, 대량 소비 시대 3부로 구획해서 훑아보고 있는 이 책에 의하면 ‘쓰레기의 역사는 기원전 1만 년에서 6천 년 사이에 시기에 시작되었다.

인류가 한 장소에 정착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시기에 이르러 배설물과 음식물 찌꺼기, 재나 부서진 도구들과 마주하게 되면서 쓰레기의 역사는 시작되었다고 한다.’(24면)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쓰레기는 인간의 삶과 함께 하면서 ‘역사를 비추고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11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쓰레기의 역사에서 지각변동에 가까운 정도의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는 ‘대량 소비의 시대’부터이다.

로만 쿼스터의 분류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를 기점으로 하는 이 시기부터 쓰레기의 역사는 결정적인 변곡점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쓰레기의 역사 지형에서 ‘폭발하는 쓰레기’라는 다소 도발적인 아젠더가 그 시대적 정체성을 극명하게 압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시기 들어서면서부터 쓰레기의 배출량은 그 전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한마디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1950년대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던 쓰레기의 양은 “쓰레기 시장이 천지개벽과도 같은 변화를 겪어야 했던 1980년대 시점에서”(239면) 겨우 정체기에 접어든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인터넷 쇼핑물이 증가하면서 증가 속도에 다시 가속도가 붙었고, 이러한 추세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진다.”(241면)

1950년대 이후 쓰레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데는 과잉 생산과 맞물려 “포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물류 체계가 발전하며 시작된 경제의 변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255면)

대량 소비 시대에 시작된 쓰레기 역사의 혁명적인 변화는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쓰레기의 양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다. 배출량과 더불어 쓰레기의 구성 내용이나 수거 및 처리 시스템 또한 적지 않은 질적 변화를 겪게 된다. 구체적으로 대량 소비 시대 이전에는 “도시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악취를 해결하고, 전염병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240면)이었지만, 이제 쓰레기는 새로운 위험 요소인 환경 오염을 야기했으며 쓰레기 생산과 처리 방식에 대한 담론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했다. 이로 인해 “대량 소비와 쓰레기 생산의 상관관계, 여기에서 벌어지는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존재하는 다양한 난관에 관한 지식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쓰레기 신드롬이 일어났다.”(240면) 오늘날 쓰레기의 문제는 서구 선진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서구의 근대적 생활 양식과 소비 문화가 표준으로 자리잡으면서 쓰레기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골치거리로 떠오르게 되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유통, 대량 폐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양산될 수밖에 없는 쓰레기의 문제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쓰레기의 소각이나 매립 문제’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쓰레기 수거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280면)했지만 쓰레기 수거와 처리 문제는 여전히 세계의 거의 모든 도시가 안고 있는 심각한 고민거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육체적으로 힘들고 사회적 평판이나 인식이 좋지 않아 직업의 위계에서 아주 낮은 지위를 차지하는 쓰레기 수거 업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제 가족은 아바단에 살지만, 저는 이곳 라고스에서 제 ‘빌어먹을’ 일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계를 꾸리는지는 가족과 처가에 비밀로 했습니다.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거든요.....제가 어떻게 감히 제 일에 대해 말할 수 있겠습니까.”(288면)라는 고백이 웅변하는, 청소부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나 혐오는 비단 나이지리아 청소부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도에서 쓰레기 수거에 종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촉천민이었고 일본에서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마을의 장로들이 히닌(非人)이나 에타(穢多)라는 낙인을 찍었는데 이들은 정해진 구역에만 거주해야 했으며, 시신 매장, 쓰레기 구덩이 비우기, 쓰레기 수거 등 불결하다고 여겨진 직종에만 종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288-289면)

하지만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전문화되면서 청소부가 직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이들에게 안정적인 노동환경과 고정된 급여 또한 보장”(290면)되면서 그 정도의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청소 노동자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는 낮은 편이다.

그로 인해 열악한 노동 조건이나 낮은 임금 등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청소 노동자들이 동원한 쓰레기 수거 파업은 적지 않은 불편과 충격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쓰레기 수거의 중단은 거리 미관을 해치고 끔찍한 악취가 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아무렇게나 쌓인 쓰레기는 잠재적인 질병 진원지였다. 쓰레기에서 나오는 산성 물질은 피부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었다.

게다가 쓰레기는 질병을 옮기는 쥐와 해충을 끌어들이었다.”(283-284면)

쓰레기의 소각이나 매립 문제는 수거 및 처리 문제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먼저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직도 많은 나라들에서 의존하고 있는 매립의 경우 대기나 토양 및 수질 오염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인화성이 높은 쓰레기나 유기물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위험성 또한 적지 않다.

1997년 9월 28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대형 쓰레기 매립지였던 도냐 후아나에서 침출수와 매립 가스 누출로 인한 대형 폭발이 발생하여 주변 지역의 주민 10만 여명이 중독, 화상,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을 받은 사고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에는 환경 정의에 대한 감수성까지 높아져 갈수록 매립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거의 모든 나라가 고심하고 있는 사안이 된 지 오래이다.

이로 인해 매립의 대안으로 부상한 방식이 소각이다.

소각은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한때 한때 각광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소각 방식 또한 소각장 건설 비용이나 유해 물질의 위험성 등의 문제로 인해 환경 단체들이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나 저항에 직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적은 양으로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물질인 다이옥신의 검출 문제는 환경 운동가들의 소각장 반대 시위의 트리거로 작용했다.’(293-317면)

사람들은 말한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과연 그러할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현실세계에서 직업의 위계나 서열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은 귀천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차별이나 혐오의 집단 무의식에 대한 방어기제나 위선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볼도록 하자.

열악한 노동 조건과 자신들에 대한 차별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고 청소노동자들이 일시에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여, 자신의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모두 각자가 알아서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끔찍한 악몽과도 같은 디스토피아적 상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하찮은 직업은 없다! 더불어 하찮은 사람 또한 없다는 말로 이 글을 매조지고자 한다.



공종구
국립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사제사초(事齊事楚)로 인한 창업 선택, 돌다리를 10번 이상 두드려라



오미크론(omicron)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시행했던 11월 초와 달리 지금은 다시 코로나 19 변이종에 대해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른 은퇴자, 청년구직자 등이 창업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혹자는 불경기가 창업의 적기라고들 한다. 하지만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돌다리를 10번쯤 두드리고 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벼룩시장이 2013명에게 창업 관련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70.1%가 향후 창업에 도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희망업종으로는 온라인 쇼핑몰 20.2%, 카페, 치킨 등 프랜차이즈가 19.9%, 음식점, 푸드트럭 등 외식업 18.2%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사태 이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은 통계다.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의 창업은 확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창업 전문가들은 불황기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가성비 사업 또는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유망하다고 전망한다.

또는 콘텐츠 사업과 같이 원가비용이 낮고 지출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나 경기나 유행을 타지 않는 공부 하는 업종도 유리하다.

우선 프랜차이즈를 이야기 해보면, 불황이 지나가고 나면 항상 새로운 프랜차이즈가 등장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창업 수요가 많을수록 호객행위를 하는 가맹본사들도 많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제대로 선택하고 싶다면 가맹본사를 잘 파악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겉으로는 화려한 미사여구와 광고로 창업 준비자들을 유혹하지만 가맹본사나 내부 시스템이 엉망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으면서 경험하고 비교 분석하는 것만이 후회하지않고 창업을 준비하는 자세다.

사제사초(事齊事楚)란 고사성어가 있다.

제(齊)나라와 초(楚)나라 사이에 있는 소국 등나라는 제나라와 친밀하게 지낼 수도 없고 초나라와 가까이 하기도 어려웠다.

어느 한쪽에 기울게 되면 서로 트집을 잡았기 때문에, 등나라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딱한 처지에 있었다.창업자들도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시대에 이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창업을 결심하게 됐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돌다리를 10번 두드리며 건넌다는 마음으로 아이템 선정 및 브랜드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재산과 향후 미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김철호
식품의약학 이학박사, 대한민국명인
수산신지식인, 내고향씨푸드 운영

기적의 포도나무



별 좋은 5월 중순 무렵 서울 성수동을 걸었어요. 리뉴얼한 건물에 들어선 멋스러운 상점들과 인파 속 산책이었지요.

걸다가 어느 건물 2층에 늘어진 덩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바닥만 한 잎의 거치가 분명한 포도나무였지요. 먼저 든 생각은 진짜일까 였고요. 이어서 덩굴을 따라 위부터 아래로 시선을 옮겨보았어요. 믿기지 않게 건물 옆으로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제대로 돌봐지지 않은 것 같았지만 희미하게 안내판에 쓰인 설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기적의 포도나무 이야기>란 제목을 달고 쓰여 있는 내용은 새들의 배설물로 싹이 튼 포도나무가 자라 포도송이가 영글었고, 이후 바닥공사로 매몰되어 섭식했는데, 어느 날 다시 싹이 나오고 잎이 무성해지고 포도송이를 달았다는 것이었어요. 제 눈에도 자랑스런 포도나무였지만 도심 한 틈에서 방치된 듯 자라고 있는 포도나무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직접 돌보진 못해도 기억은 해야겠다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포도나무는 성서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하신 말씀으로 비유되고 있어 신성한 나무로 여겨져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로는 400년이 넘는 나무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고 보니 5월 중순 무렵에는 포도 꽃이 피고, 송이송이 꽃 진 자리마다 포도 알이 맺힌답니다.

포도 꽃도 송이로 피고 그 꽃 하나하나 포도 알이 되고 커다란 포도송이가 되는 일도 감탄스럽기만 합니다. 올해는 포도나무를 만나면 꼭 포도 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재순 시인 /
시인/ 한국아동문화회, 전북작가회의 회원
문 밖에서 만나는 나무와 풀, 곤충을 사진에 담고 이야기한다.

군산시,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 추진

새만금 국가산단 내 첨단전략산업 조성
총사업비 320억 원 투입



군산시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새만금 기업성장센터'(이하 센터)를 건립한다. 이번 사업은 이차전지 등 앵커기업(특정 지역이나 산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 입주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국비 16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20억 원이 투입되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규모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공구에 지상 3층으로 조성되며, 완공 후에는 임대형 생산공간과 근로자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적인 공간 역할을 하게 된다.

동시에 입주기업의 생활 여건을 높여줄 복합 편의시설도 함께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혁신 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및 소규

모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인프라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건립 필요성, 기업 수요조사, 유치업종 선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4일에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되었다.

군산시는 일단 올해 국비 4억 9,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이후 추경예산을 통해 지방비를 확보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한다. 특히, 올해 안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센터가 조성되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과 연계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에 다양한 신산업 기업이 집적되면서 지역 산업 생태계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단 플라즈마 기술로 미래성장 발판 마련

군산시, 지역 융합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추진
차세대 과학인재육성 위한 '플라즈마 스쿨' 운영



군산시가 첨단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및 산업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시는 차세대 과학인재육성을 위해 '플라즈마 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로 지역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플라즈마 기술 지역 융합 R&D 및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와 공동 협력하고 있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 기술연구소'는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플라즈마의 기반 기술부터 융복합 연구까지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플라즈마 전문 연구기관이다.

플라즈마 기술은 환경오염 저감은 물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우주·항공

등 국가 첨단 전략기술과 연관성이 높아 첨단 제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군산시는 이차전지, 수소, 소재·부품 등 지역 특화산업과 플라즈마 기술의 융합 가능성에 주목하여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기업 맞춤형 지원과 신기술 개발로 지역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신산업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플라즈마 스쿨' 운영을 통해 교육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학생들에게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은 이론 학습뿐만 아니라 실험과 체험 활동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을 키우고 실질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플라즈마 스쿨 심화 과정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미래 에너지 및 첨단 기술 분야로 진출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플라즈마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장비 자립화를 위해 'Si기반 플라즈마 통합 솔루션 센터 구축' 사업을 구상하여 플라즈마 기술의 요람이자 글로벌 대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근대역사박물관, ‘천리 따라 구비구비’

4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 발생한 구비민요 재조명



전시자료는 민요 채록 파일 51건, 전시물 281점으로 박물관 소장품을 비롯,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근대기록문화조사팀 등 8개 기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 1부 <탄생부터 구비구비>는 아이의 탄생과 성장에 관련된 자료와 함께, 아이를 향한 염려와 사랑을 보여주는 양육요를 ▲ 2부 <사랑 타령 구비구비>는 혼례청의 모습을 묘사한 민요부터 소중한 딸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소망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민요, 고된 시집살이를 한탄하는 민요를 만날 수 있다.

이어지는 ▲ 3부 <일할 때도 구비구비>는 노동의 고됨을 잊고자 불렀던 노동요 중 농업노동요와 어업노동요, 가사노동요가 소개된다.

▲ 4부 <황혼 너머 구비구비>에서는 나이 듦을 한탄하면서도 죽음이라는 삶의 이치를 받아들이며 불렀던 민요와 통과 의례 중 마지막 단계인 장례의식을 소개한다.

여기서는 탄생부터 죽음까지 사람의 일생과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였던 민요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선조들의 삶과 희로애락이 담긴 민요가 재조명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4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기획전시 ‘천리 따라 구비구비’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특정한 작사자나 작곡가 없이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 발생한 구비민요를 사람의 일생과 접목해 재조명한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시 해망로 240
www.museum.gunsan.go.kr/

군산시,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공모 선정

지역 창작자와 지자체, 상인·주민 협력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에 1억 2,000만 원 지원



월명동 일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지역 상권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지역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로컬 크리에이터(지역창작자), 상인,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해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기부는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고,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 신청 지자체별 사업계획 발표, 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지난 14일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월명동 일원은 군산 원도심의 중심지로, 근대역사문화자원과 관광인프라가 밀집돼 있어 상권 활성화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상권의 자생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군산시는 1억 2,000만 원을 확보, 오는 11월까지 지역 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업을 통해 ▲상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지역 고유 자원에 대한 로컬 아카이빙 ▲로컬 크리에이터(지역창작자)와 연계한 공동 마케팅 ▲상인·주민 참여형 리빙랩 프로그램 운영 ▲상권 브랜딩 및 전략 수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지역자원을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재해석하고, 로컬브랜드 개발 및 소비자 체험을 강화해 상권을 단순 소비공간이 아닌 문화와 경험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로컬 크리에이터(지역창작자)와의 협업도 진행한다. 시는 협업을 통해 상권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창업과 관광객 유입 등을 유도해 장기적인 원도심 재생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인·주민·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동네상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도 마련한다.

군산시는 이번 사업이 단기적 매출 증대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헌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군산시가 지역 구성원들과 함께 지역 상권의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전했다.

3.1운동100주년기념관 독립기념관 순회전

4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기념관 2층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독립운동사



립운동의 역사를 크게 3개 주제로 나누어 그림과 함께 이야기로 풀어나간다. 전시물은 총 18점이다.

첫 번째 주제는 3.1운동 이야기로 3.1운동의 준비 과정과 만세 운동을 전하며, 두 번째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소개하며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배경, 상하이시기와 충칭 시기 활동을 이야기한다.

마지막은 한국광복군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군을 창설한 배경과 한국광복군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세하게 소개한다.

기념관은 어린이들이 관람을 모두 마치고, 독립을 열망하는 함성을 직접 적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전시실에 엽서를 비치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다. 이번 전시로 어린이 관람객들이 과거 독립운동가들이 광복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배우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 3.1운동 100주년기념관은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리며 설립되었다.

군산에서는 3월 1일이 아닌 3월 5일에 만세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전북 지역 최초로 일어난 만세 운동이기도 하다.

군산 3.1운동 100주년기념관(이하 기념관)이 4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기념관 2층에서 독립기념관 순회전 ‘어린이

를 위한 이야기 독립운동사’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독

군산3.1운동 100주년기념관
군산시 영명길 15
www.gunsan.go.kr

군산시, '배달의 명수'로 지역경제 살리기 나서

공공 배달앱 활성화로 지역경제 살리기 대응
소상공인 간담회, 가맹점·소비자 불편 사항 수렴



군산시가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의 활성화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최근 배달 시장의 대형 플랫폼 독과점 구조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배달의 민족'이 지난 14일부터 포장 중개 수수료 6.8%까지 부과해 자영업자들은 강한 반발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공공 배달앱 활성화 정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소상공인에게는 '배달의 명수' 사용을 장려하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배달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지난 7일과 17일 2차례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공공 배달앱의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을 펼쳤다.

주요 쟁점은 '배달의 명수'가 수수료 무료를 최대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점주 처우 개선에만 정책이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부담 감소에 치중해 소비자 유치 방안 미흡 ▲앱 서비스 사용 불편 ▲관련 홍보 부족 등도 지적했다.

시는 이런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수수료를 일부라도 부과해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 대다수의 지적을 취한 결과이다.

아울러 지난 16일부터 '배달의 명수' 앱을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만족도와 불편 사항 등 설문조사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배달의 명수' 활성화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배달의 명수' 운영사 역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다.

실제로 최근에 예약하기, 선물하기 등 편의 사항 고도화를 마쳐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보강했으며, 소상공인들이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하고 있다.

군산시립교향악단, 제163회 정기연주회

호국보훈의 달 맞아 '베토벤 영웅' 선보여
6월 5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남의 나라에서 자란 도시 **군산**
4월 호국보훈의 달 기념

군산시립교향악단
제163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영웅’

2025. 6. 5. (목) 19:30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L. v. Beethoven
Symphony No. 3 in E-flat Major Op. 55
E. David
Trumpets Conducted by L. v. Beethoven
L. v. Beethoven
Symphony No. 3 in E-flat Major Op. 55

악장곡자 **박영규** 악장곡자 **박영규**

공연시간 : 1곡 공연시간 100분 (중간 휴식 15분 포함)
공연장소 : 1관객 5,000명 (공연장소: 군산예술의전당)
공연문의 : 1 공연문의 www.ticketlink.co.kr 4월 29일 10시 10분부터 공연문의
공연문의 : 1 공연문의 공연문의 1관객 5,000명 (중간 휴식 15분 포함) 공연문의 : 1 공연문의 공연문의 1관객 5,000명 (중간 휴식 15분 포함)
공연문의 : 1 공연문의 공연문의 1관객 5,000명 (중간 휴식 15분 포함) 공연문의 : 1 공연문의 공연문의 1관객 5,000명 (중간 휴식 15분 포함)

주최 : 군산시 후원 : 군산시립교향악단 공연문의 : 063-454-5556 www.gunsan.go.kr/arts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제163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영웅'을 오는 6월 5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시민들에게 국가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마련됐다.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이명근의 지휘 아래 막을 여는 첫 곡은 인생의 갈등과 고뇌를 담아낸 베토벤의 '코리올란 서곡'이다. 특히 오디션을 통해 발탁된 박지수가 다비드의 '트럼본 협주곡'을 선보인다.

트럼본 연주자 박지수는 국내 최초 최연소(만16세)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조기 입학한 재원이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곡 역시 베토벤으로 그의 역작인 교향곡 3번 '영웅(Eroica)'이다.

이 곡은 베토벤이 청각 장애라는 현실을 극복하며 품었던 영웅에 대한 이상과 정신적 고투가 반영된 명작이다.

1악장의 긴장감, 2악장의 장송 행진곡을 지나 압도적인 스케일의 4악장을 통한 편의 드라마 같은 극적인 결말이 휘몰아친다.

군산시립교향악단 제163회 정기연주회는 전 좌석 유료(5,000원)로 진행되며, 초등학교생부터 관람할 수 있다.

예매는 오는 4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티켓링크 (<http://www.ticketlink.co.kr>)에서 가능하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립교향악단 누리집 또는 전화(063-454-5556)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군산예술의전당
군산시 백토로 203
www.gunsan.go.kr/arts/

‘지역 내 장애 학생 사회 진입 디딤돌 마련’

지역사회 기반 현장실습 프로그램
‘우리 마을 인턴십’ 5월부터 본격 운영



지역 내 장애 학생의 지역사회 기반 현장 실습 프로그램인 ‘우리 마을 인턴십’이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격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교육발전특구(2차) 시범지역 사업의 하나로,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을 발굴해 ▲특수학교 ▲발달장애 대안학교 ▲평생 교육 시설 등의 재학생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참여 희망 기업과 학생을 동시 모집했으며, 총 7개 기업과 8명의 학생이 신청했다.

지난 21일 5개 기업과 8명의 학생이 최종 매칭됐으며,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인턴

십이 시작될 예정이다.

참여기업은 ▲(주)비에스엠신소재(군산공장) ▲주식회사 청기와 ▲굿월스토어 군산점 ▲말통커피 군산점 ▲농업회사법인 산돌팜이다.

인턴십은 멘토-멘티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1명의 기업 담당자(멘토)가 1~2명의 학생(멘티)을 맡아 주 15시간의 근무를 함께하며 현장 중심의 직무 교육과 정서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한다.

기업 담당자(멘토)에게는 월 70만 원, 학생(멘티)에게는 월 8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특히 ‘우리 마을 인턴십’은 단순한 직무체험을 넘어, 참여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사회 진입의 디딤돌이 되고, 기업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모두가 함께 배우고 일하는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군산시는 기업과 학생이 모두 실질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부경희 개인전

4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박물관 2층 시민열린갤러리



부경희 개인전 자연을 묵향에 담아내다

2025. 4. 29.(화) ~ 6. 29.(일)
시민열린갤러리 (근대역사박물관 2층)



작가 부경희의 개인전 '자연에 묵향을 담아내다'가 4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 2층 시민열린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동양의 따뜻한 분위기를 작품에 담고 여백의 미를 통해 각자의 의미를 포함하는 부경희 작가의 수묵담채화 30점을 선보인다.

초대작가인 부경희 작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 전람회 국전 입선 ▲한·중 미술 교류전 ▲벽골제 미술대전 특선 및 대상 등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 등 약 100여 회의 작품을 출품했다.

작가의 작품은 자연이라는 소재와 선의 묵향, 담백한 색으로 따사로움과 아름다움을 전달하며, 여유가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여백의 미를 통한 마음의 여유로움까지 선사한다.

작품에서의 여백은 그리다가 남은 빈자리가 아니라, 작가의 의지로 설정되어 적극적 의미가 부여되는 공간이다

관람객은 상상력을 통해 여백에 대한 무한하고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부경희 작가는 “한 번의 획이 살짝 지나간 자국에서 희미한 색의 흐름조차 깊은 뜻이 담겨 향기가 묻어나는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이 수묵화의 매력에 매료되길 바란다”며 소개의 글을 남겼다.

한편, 시민열린갤러리 전시장은 지역 작가들의 예술 활동을 위해 마련됐으며, 해마다 공개모집을 통해 전시작가를 선정하여 전시 공간 등을 지원한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시 해망로 240
www.museum.gunsan.go.kr/

설림도서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 선정

지역아동센터 대상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독서에 대한 흥미, 책 생활화하는 환경 조성



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책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설림도서관은 전국 120개 공공도서관 중 하나로 선정돼 지역 아동들에게 독서문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사업은 한우리 지역아동센터와 협력,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화요일 총 16회에 걸쳐 진행된다.

사업을 통해 도서관 이용 교육을 비롯한 그림책 스토리텔링과 글쓰기 및 감정표현, 음악 등의 다양한 독후활동을 제공하고, 작가와의 만남도 함께 진행해 아동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2025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으로 도서관이 지역 사회와 더욱 가까워지며, 문화 소외 아동들에게 책을 통한 소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설림도서관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 설림도서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하는 ‘2025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식정보 취약

군산시립도서관
군산시 축동로 72
lib.gunsan.go.kr/



전북 최초 이명치료기 'ALTMS' 도입



전 경 호 JKH ENT Clinic
이비인후과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252 2-3층 T: 063-471-5575

군산과 새만금 지역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려는 매거진 군산·새만금을 위하여 보내주신
격려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매거진 군산·새만금에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독자 관리를 위하여
CMS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이 신청서는 군산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신청서 작성 후

1. 권유하신 분께 직접 전달
2. 팩스로 송부 (063) 442-3883
3. 사진 찍어서 이메일 newgunsanews@naver.com

이런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출금이체서

수납기관 및 요금종류

·수납기관명: 문화공감 사람과 길(매거진 군산) ·대표자: 채명룡 ·사업자등록번호: 241-43-01344
·사업장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절골3길 16-2(신흥동) ·수납 요금종류: 구독료 납부

- ☐ 매거진 군산·새만금 구독 (7,000원/월)
☐ 새군산신문 + 매거진군산·새만금 구독
(10,000원/월)

■ 구독받으실 주소

·출금계좌 예금주명_

·금융기관명_

·출금 계좌번호_

·예금주 생년월일_

계좌 예금주가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예금주 연락처(휴대전화)_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신청인명_

·예금주와의 관계_

·신청인 연락처(휴대전화)_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인 또는 서명)



족발야시장 군산미장점

맛있는 재료로 만든 졕발의 명가

대표 전 재 용

군산시 미장1길 38 102, 103호

TEL: 063-453-4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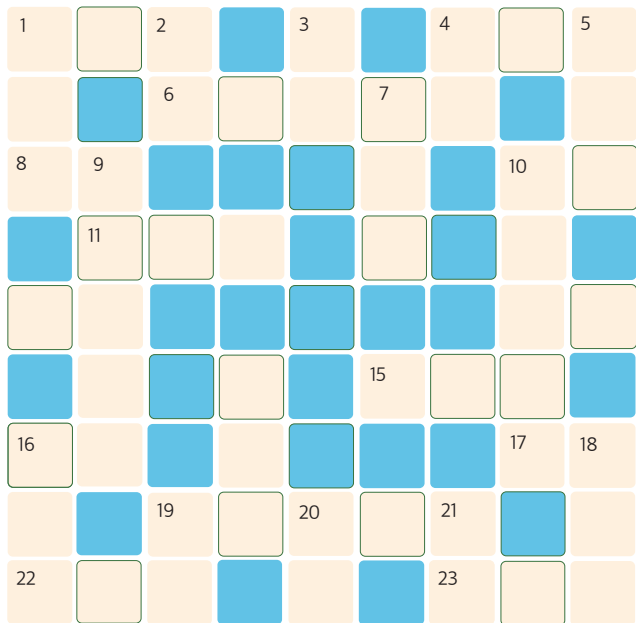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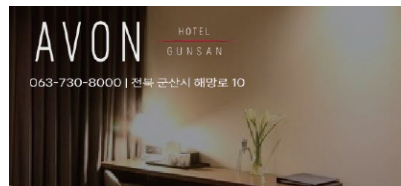
국내 1위를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특수강 전문 기업-세아베스틸
이제, 세계 최고의 특수강 메이커로서 다시 태어납니다.

Born to be Special

즐거운 크로스워드 퍼즐

165



각	고	군	산	군	도	간
자	추	통	시	무	식	
도	봇	장	수	가	락	지
생	신	훈	몽	상		
변	리	사	보	라	매	
육	덕	출	청	공		
쟁	탈	전	기	조	연	설
오	이	지	음	촌	시	
타	유	산	소	운	동	장

<164호 해답>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 새만금에 보내주세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에이본호텔 썬데이 브런치 2인)을 드립니다.
 Fax. (063)442-3883 E-mail. leejonny_@daum.net
경품 추첨을 위해 팩스, 메일 보내주실 때 반드시 연락처 기재 바랍니다.
 출제: 오성렬(편집위원) 협찬: 에이본호텔 군산

가로 열쇠

- 01 뒷면이 네모난 모자. 주로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식 때에 쓴다.
- 04 죽은 사람과 다친 사람.
- 06 귀, 코, 목구멍, 기관, 식도의 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학 분야.
- 08 시간이 지난 뒤에 올 날. 뒷날.
- 10 짊이나 갈대 따위로 지붕을 인 집.
- 11 법률적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 12 언니가 여동생의 남편을 이르는 말.
- 13 스승과 제자.
- 14 여러 가지 내용의 글을 모아 편집해서 펴내는 정기 간행물. 000군산.
- 16 바다에서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 17 예전에 벼슬아치들이 모여 나랏일을 처리하던 곳.
- 19 부처님 오신 날.
- 22 보통 15~20세 무렵, 이성에 눈을 뜨고 춘정을 느끼게 되는 시기.
- 23 좋은 운수를 만나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사람.

세로 열쇠

- 01 사자의 우렁찬 울부짖음이란 뜻으로, 부처의 위엄있는 설법을 비유하는 말.
- 02 닭이나 날짐승의 먹이.
- 03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 00신고.
- 04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
- 05 어린이를 재우기 위해 부르는 노래.
- 07 쌍둥이 중에서 나중에 태어난 아이. ↔ 선둥이.
- 09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
- 10 1998년 개봉한 한석규, 심은하 주연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무대 촬영지로 유명한 군산 신창동 소재 건물.
- 14 특정한 시기에 대중의 인기를 얻어서 많은 사람이 듣고 부르는 노래.
- 16 8만 대장경이 소장된 경남 합천의 사찰.
- 18 육대주의 하나로 세계 육지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대륙. 남북은 인도네시아에서 시베리아, 동서는 일본에서 튀르키예 및 이라크 비아에 걸친다.
- 19 돌로 만든 여러 가지 생활 도구.
- 20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비람.
- 21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무리.

"매거진군산 새만금과 함께할 필진을 모집합니다"

연락처: 063-445-4700

이메일: leejonny_@daum.net